



서울大同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6년 5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38호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張一權 | 편집주간: 許 瑋
발행처: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아포구 도화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FS: 060 604 0011
홈·팩·영광 | www.snua.or.kr

헌해탄 너머에도 모교 사랑 출렁인다!



동경지부 동창회 총회를 마치고



오사카지부 동문들과 기념촬영 <관련기사 3면>

관악추추

동성 중심가 '뉴 오타니' 호텔. 지난 4월 21일 저녁, 이 호텔의 한 뱅크트룸에서는 파어난 서울대 교가 무령차게 울려 퍼졌다. 동경지부 재건 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백발이 성성한 원로 동문들과 용안의 난년 동문들이 어우러져 한계 엮어내는 화합의 교가제창이었다. "가슴마다 성스러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견고 원하게 교가를 합창하는 동문 중에는 강겨워 겨워 눈시울을 붉히는 이도 있었다.

사실 동경지부는 그동안 저조한 활동으로 유명부 실했다. 근 8년간 모임다운 모임이 거의 없는 동면상태였다. 거기에도 지부명칭과 영역 문제로 집행부가 이웃 오사카지부의 복신을 사는 등 일본 내 다른 지부와도 갈등과 미찰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엔 금야행동문을 중심으로 한 재건운동이 열매를 맺어 이날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재출발하는 경사를 맞았으니 반가운 일이 아닌 수 없다. 특히 이 자리에는 동경지부 초대 회장을 비롯한 노·상·청 동문들이 대거 나와 예약된 시간을 1시간 이상 늦게하며 모교 이야기와 학창시절 회고담으로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동경지부 재건과 더불어 서울대총동창회는 이제 전 세계에 총 48개 해외지부를 거느리게 됐다. 가장 활동이 왕성한 곳은 역시 전제 해외지부의 절반 가까운

23개 지부가 들려 있는 재미총동창회다. 캐나다와 하와이를 포함해 1만여 동문은 아우르며 그 중 6천5백여 동문들이 매월 재미총동창회보를 받아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그동안 사카고지부, LA지부, 워싱턴 DC지부 등 2년마다 번갈아 가며 재미총동창회 운영을 맡아 협동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유럽 쪽에도 회원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10여 개 지부가 국가별로 서마다 현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도 중국의 북경·천진·상해지부와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지부 등 10여 개 지부가 농민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들은 각종 기업체, 대사관, 언론사 특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을 주축으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기 교류대회나 현지 한민교회를 방문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이들 동창회 해외지부들 중에는 자생적인 결성과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많아 한 대륙이나 한 국가 안에 여러 지부가 있을 경우 조직의 명칭이나 위상, 영역 다툼을 둘러싼 분쟁이 없지 않아 왔다. 동경지부와 오사카지부가 병립해 있는 일본도 그런 곳 중의 하나였다. 이번 동경지부의 재탄생을 계기로 일본지역도 재미총동창회처럼 동경과 오사카지부가 상호이해와 화합정신의 바탕 위에서 주거나 받거나 사이좋게 순번을 정해 재미총동창회 운영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仲)

동경 봄밤의 교가제창

관악시단

침묵

吳世榮 (국문8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시인협회장

하늘 높이
노고지리의 저 파아란 울음소리는
생의 끝없는 도약을 느끼게 한다.
지상을 박차고 오르는 그의 비상,
노고지리만은 아니다.
울밑 노오란 병아리의
노오란 울음,
앞 돌 모래기 논리
보랏빛 땀방울이 울음,
죽음 짙어가기 시작하는 뿔 숲 꾀고리의
황금빛 울음,
흙을 들치고 막 고개를 내미는 지렁이의
갈색 울음까지도...
봄 되어
저울을 떨쳐버린 온 생명은
감격과 희열로 울부짖는데
아아, 우리의 북쪽은 왜 항상
이따지도 침묵뿐인가.

특별기고

정치 계절이 되었다 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입후보자의 집중을 알 만하다. 그러면서도 선거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겨 天下大勢를 가능하지 못하지는 않을가 걱정도 된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가(statesman)가 정치꾼(politician)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오늘날의 세계는 인류 역사상 극히 드문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를 향해 몰려오는 국제 조류는 심상치가 않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내 일이나 어떻게 되건 내 앞 바 아닌 그저 나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걱정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 나라를 어

떻게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 안전보장 문제와 더불어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을 염두에 두고 진정한 우리의 동맹국은 누구이며 누가 적이 될 것이고 누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가 - 즉 우리의 國際戰略을 묻고 있는 것이다.

정치 계절에 부쳐

金在淳

문화 명예회장

샘터사 고문



동문칼럼

중국 藥나라 화가 장승요는 佛敎의 山水를 신재 삼아 잇듯 그려내는 절경산수화의 명인으로 '水衡記'에 등장한다. 당시 금릉소제 安樂帝 주지가 사할뻔했는데 용 한 쌍을 그려달라는 간청에 그는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용의 모습을 비는 하나까지 생생히 그려냈다. 그러나 용의 그림엔 화동진만만 한 눈 속에 눈동자가 없어 열매진 모양이 금공했던 사람들이 끈질기게 불렀을 때 "만약 눈동자까지 그려 넣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말을 믿어서 하지 않았다. 눈동자를 그려 넣으라는 성화에 시달리던 어고집정이는 마지막에 못에 먹을 써서 용 한 마리에만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 바로 그 때 천둥 번개와 함께 용 한 마리가 벽을 부수고 뛰어나와 구름을 뚫고 승천했는데, 잠시 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 눈동자가 없는 용만 덩그러니 벽에 남아있었다는 고사가 '龍圖變'이란 말이 생길 유래다.

덴마크의 한 신문에 실린 카툰 몇 컷이 얼마 전 이승만과 부울림들의 분노를 일으킨 '傳火'였다. "불을 붙인 폭탄의 심지" 역할을 결과적으로 한 셈인 이 카툰은 공교롭게도 하호메르의 터번에 시한폭탄을 장착했으니 이를 두고 遊藝단 해아 한지 자립지족의 인과응과보다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제가 놓은 불에 치달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나를 그려다 제 모습을 그린 자화상처럼 무슬림이란 거대한 범주를 건드리 불발한 상황이 됐다. 유럽의 유력 인간지 존용도 등 유럽의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아랍권의 분노의 불꽃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양상이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언론의 시금석이란 시각에 이의를 달 사람은 물론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표현자유와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로 논의의 핵심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

우선, "종교"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 '神聖'한 것이므로 인식이 절실히다. 종교란 차이를 인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 자체가 어떤 인간의 '자학'일 수도 있다. 내 조상이 종교란 남의 조상도 그러하듯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사자의 배려가 애초부터 있어야 한다. "신도 민화도 조율할 수 있다"는 유럽언론의 대체적 입장은 원뿔 보편 표현자유 원칙론 같지만 어

려 종교간의 갈등과 편견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감성적 폭력을 확대 재생산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아바존간 한 마디 내미의 조그만 날갯짓이 저 멀리 미국 플로리다까지 토네이도로 확대되는 이른바 '나비효과'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대되는 '나선효과'가 합쳐질 때 그 위험은 엄청나게 때문이다. 어떤 아이러니나 시간증도 금기시하는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종교 문화적 차이를 논의하기 앞서 보편적 세속의 전진한 양식이란 '분문'과 서양의 신사도나 동양의 人 人 人자의 도리 등은 어떤 경우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호충돌을 예방하는 기본 덕목이다.

늘째, 시사만평에 있어서 그 상상력은 무한대지만 표현의 현실적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想像無門 義道有門'의 창작자세가 건요하다. 예컨대 작년 미국 부시대통령 관사놀이애 관측을 거는 패러디가 문제된 적이 있는



劉漢台

(음용미술67-71)

숙명여대 디자인학부 교수

데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풍자할 경우 인민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기, 총기나 위험물 등을 결부시키는 것은 삼가야한다. 요즘 난무하는 무분별한 인터넷 패러디도 본디는 같은 사람으로서 소중한 인권을 존중해야하고 내 생명 중하면 남의 생명도 고귀하듯 인명도 마찬가지다. 기본 삼십선인 "불"을 지키면서도 양식 수위선인 "度"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로소 만평표현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얼마 전 덴마크 카툰은 민평만의 매력인 '예고'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섬뜩한 인상이었다. 물 위에 폭탄을 그린 畫像 點火(?)의 도화선이 돼 버린 격이니 그 파장의 폭과 기간, 그리고 잠복된 분노의 결과와 실제 우려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 부시 대통령의 兩難論과 폭력금지 입장도 마찬가지다.

"파란 사람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 다리 펴고 잔다"는데 이 경우는 파란 사람은 오묘함과 맞은 사람은 부드러움이 갈라져 있는 형국이니 나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단순한 '예고'가 너무 지나치면 맞팔까, 아니면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過激反應을 일으켜 '不敬不禮'란 표현이 적절하지도 모른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니 "원수는 腹으로 풀라"던 선인들의 지혜를 되새김 때다. 때마침 덴마크 신문에 문제의 카툰을 그렸던 사람이 이번엔 이슬람교의 보란을 그림으로 소개해줘 한두는 의신보도가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필자는 작년 11월 초부터 매주 금요일 SBS 8시 뉴스에서 '유한태의 주간만평'을 담당하고 있다)

'문명충돌' 만평의 교훈

한 점에 있다. 부시 대통령의 兩難論과 폭력금지 입장도 마찬가지다.

"파란 사람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 다리 펴고 잔다"는데 이 경우는 파란 사람은 오묘함과 맞은 사람은 부드러움이 갈라져 있는 형국이니 나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단순한 '예고'가 너무 지나치면 맞팔까, 아니면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過激反應을 일으켜 '不敬不禮'란 표현이 적절하지도 모른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니 "원수는 腹으로 풀라"던 선인들의 지혜를 되새김 때다. 때마침 덴마크 신문에 문제의 카툰을 그렸던 사람이 이번엔 이슬람교의 보란을 그림으로 소개해줘 한두는 의신보도가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필자는 작년 11월 초부터 매주 금요일 SBS 8시 뉴스에서 '유한태의 주간만평'을 담당하고 있다)

알림

3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7월 8일(토) 마포 동창회관에서 개최

친목과 단합의 장이 될 제3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는 오는 7월 8일 개최됩니다. 장학금의 사리가 될 동창회 본도 둘러보고,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 멋진 대국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6년 7월 8일(토) 09:00~17:00

◇장 소: 서울 마포 동창회관(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참가대상: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연.약 7급 이상)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진행:

①단체전(단체 및 자부내 5인, 복수전 가능)

②개인전(棋力別 6급 이내): OB조와 YB조로 분리

총 8회전(당 6경기 분기), 스위스 리그

◇심판: 2006년 7월 1일까지

홈페이지(www.snua.or.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

@snua.or.kr (전화 702-2233, 팩스 703-0755)

◇참가비: 없음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시상내역: 1전원에게 해당하는 상품

◇기타: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기참가자 및 관람자를 위한 경품 추첨

◇문의사항: e-mail/전화 702-2233, 팩스 703-0755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회 ·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 동문기고: 생활 속에서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 잊을 수 없는 사건 등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2쪽자 원고지 8매 또는 18매 분량으로 맞춰 보내주세요. — 원고가 채택된 후에는 연하드리고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주소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배달 5일 이전에 알려 주시면 그 뒤 발송하오록 변경된 주소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 02)702-2233 / 팩스 02)703-0755

◆이메일 snua@korea.com



동경지부 동문들이 마지막 순서로 교가를 합창했다.



오사카지부 李元龍영예교문이 건배제의를 했다.

일본지역 동문들 ... 단결 의지 재확인

본회 林光洙회장, 禹仁性부회장, 본부 南仲九논설위원, 許 晄사부 총장 등이 일본 동경 및 오사카지부동창회 초청을 받아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 공식일정으로 동경과 오사카를 방문해 뜨거운 환영을 받았으며, 동창회 활성화와 방안에 대한 의결을 나누고 일본지역 동문들을 격려했다.

동경지부

새 회장에 金斗漢동문

동경지부동창회(회장 奉光王)는 지난 4월 21일 동경 New Otani 호텔에서 방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본회 순방단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奉光王회장을 대신해 金斗漢(금속공학46-50)교문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金斗漢교문은 "오랫동안 동창회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에 타 지역동창회와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동경지부동창회의 재건을 위해서 새 회장단이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奉회장의 사의표명도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통해 동창회를 이끌 어갈 새 회장을 선출할 것을 제의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임후보로 추천된 金斗漢(전기공학48-52)동문을 반장임치로 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첫째로 있는 동창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타지역 동창회와 더불어 일본지부 총동창회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운을 뗐 뒤 "앞으로 전 동문은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업종별·취미별 모임등 신선헌 연계를 추진·취급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국 총동창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이곳에 유학 후 해 동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金斗漢(자위공화국89-93)총부의 사회로 지평원 2부 만찬시에는 선후배가 한데 어울려 본회 순방단을 환영하고 모교 박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오늘 총회에서 동경지부 동창회장으로 새게 선출되신 金斗漢회장에 축하

드리며 앞으로 여러분께서 일본지역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교와 동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

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尹仁藏(가정교육68-72)동경한국학교장과 파견교사로 있는 徐貞善(사회교육84-88)·許亨道(역사교육97-01)동문을 비롯해 동경한국학교 학부보로 있는 동문들도 대거 참석해 화가에예한 분위기 속에서 여흥을 즐겼다.

尹仁藏교장은 동경한국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오늘 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徐貞善·許亨道동문과 함께 학부보님을 중 방문하신 편을 찾아 일일이 연락드리며 교섭을 중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며, 일본지역 동창회가 활성화하려면 주재원 자녀나 앞으로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재일교포 자녀들이 모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들이 다시 동문이 되어 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본국 총동창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許亨道동문은 "97학번으로서 동경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 3

학년 단입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90년대 학번 동문들을 많이 찾아 접고 활기찬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날 참석한 동문 전원이 자기 소개를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교가를 부르며 동창회의 밝은 내일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경동창회장으로 二松學金大學 명예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柳熙熙(국어교육53-57)·吳英美(국어교육53-57)등 본부, 유학생으로 모교 철학과에 입학한 일본인 山本一也(철학89입) 동문 등이 참석했다.

羅維一주일대사

순방단 오찬에 초청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순방단과 金斗漢동경지부동창회장 등이 羅維一(정치59-63)주일대사 초청으로 지난 4월 21일 동경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오찬모임을 열고 한일관계의 미래, 국내외 정세 그리고 모교와 동창회 소식 등을 주제로 화가에예한 정담을 나눴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30만 동문을 대표해 동문의 정을 전함과 동시에 최근 모래한 김대중 서



좌로부터 南仲九·金斗漢·羅維一·林光洙·禹仁性·許 晄동문

"동문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윤대 동문들이 눈에 띄게 단합하면서 달라져가고 있다는 점, 모교 총장 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의 참석 경위와 보고 느낀 점 등에 관해 소상히 설명했다. 羅維一주일대사는 환영인사들

겸해 "이렇게 방면에 격려해 주신대 대해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동창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林光洙회장과 南仲九선배님 그리고 동창회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는 대사가 동창회 분들을 만나고 그것도 어려웠다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나온 모교와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오사카지부

동창회 발전 방안 논의

오사카지부동창회(회장 三井泰正)는 지난 4월 20일 오사카 와다코 호텔에서 본회 순방단을 맞이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사카지부 牟太藏(법학71-75)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三井泰正(치의학62-68)M.TSUI 한리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林光洙회장님 방문 계기로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교를 도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일본지역에 있는 동문들을 아우를 것인지 서로 고민하며, 협력해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역사와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의 동창회가 재일본동창회와 같이 새롭게 활성화되는 방안의 논함으로써 일본 전역에서 활동하

고 계신 동문들이 모교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일본 동문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 許 晄사부총장은 "얼마 전 인도네시아지부에서 글로벌모임을 한 뒤 참석자들이 장미밭길 걷기에 쉼터에서 휴식하며 모교를 소개하는 등 동창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李元龍(중문48-51)전近畿大學 교수겸영예교문은 건배제의를 통해 "총동창회에서 매년 보내주는 동창회보를 제정해 정독을 하고 있는 동문은 한 사람으로서 운명적으로 만난 신우애 동문들이 간간한 유대감으로 더욱 발전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三井泰正회장은 "이곳 일본에서도 지역별로 지

부동창회가 결성돼 활동하면서 그동안 동경지부와 교류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오사카지부를 서 일본지부로, 동경지부를 동일본지부로 해서 정기총회도 1년에 한번씩 번갈아 가며 개최한다던 일본지부 총동창회장은 명칭으로 전 일본지역 동문들이 더욱 화합하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창회에 바라는 점과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三井泰正(화학공학69-73)PARK LTD 대표)동문은 "기존의 회원들은 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후배 동문들에 대해서도 자문도 없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총동창회에서 회원명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金世榮(의학68-72)김의원 원장)동문은 "오늘 함께 참석한 栗原(의학76-82)RYOU 칼리니 원장·李錫柱(의학83-87)Lee's Clinic 원장)등부와 후배 몇몇이

뜻을 모아 12년 전부터 2년에 한 번 한국어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매년 본국 동기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총동창회에서 의료봉사가 필요할 것을 알려줘서 이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牟太藏총무는 "그동안 동창회가 후배 동문들을 지원하는데 소홀했다"며 "다들 일반 친목회는 문제 제기 생기면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문들이 모교만큼은 의무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의 동기와 후배들을 동창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西原正雄(치의학61-69)西原正和 원장, 立憲主(국사학73-77)동문, 鄭文植(물리학74-78)학교법인 金剛學院사무장, 高野龍(치의학74-81)고치과 원장, 金世榮(경영84-89)河津인회계사사무소 주임 등이 참석했다. (表)

지난 3월 17일 정기총회 결의에 의해 본회 부회장 및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직을 아래와 같이 새로 구성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부회장 가운데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 중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새 출발 ... 동창회 활성화 다짐하며”

제21대 총동창회 회장단 프로필

명예회장 金在淳  경제 45-51 생터사 고문	명예회장 鄭雲燦  경제 66-70 모교 총장	회장 林光洙  기계공학 48-52 임팩트진 회장	상임부회장 孫·根  법학 51급 한국일보 상임고문	부회장 金貞植  통신공학 48-56 대덕전자 회장	부회장 尹勤煥  농학 50-54 농업수산부 장관
부회장 劉鐘海  법학 50-54 연세대 명예교수	부회장 徐廷和  법학 51-55 (주)대경 회장	부회장 李吉女  의학 51-57 강원대 총장	부회장 李海遠  행정 51-56 한국 우드워드 회장	부회장 朴熙伯  의학 51-57 박희백 정형외과 원장	부회장 崔斗衡  행정 51-55 삼원개발 회장
부회장 喪命仁  법학 52-56 법무법인 대정양 명예대표 변호사	부회장 閔丙峻  사회교육 52-56 한국 광고주 협회장	부회장 全東龍  수의학 52-56 한국 양돈산업 대표	부회장 李世中  행정 53-57 현대 합동법률 사무소 변호사	부회장 鄭宗澤  행정 54-58 충청대학 회장	부회장 李相赫  행정 54-58 고려 합동법률 사무소 변호사
부회장 崔相弘  기계공학 54-58 한일 에이치 회장	부회장 金宗鎭  행정 55-59 세계 스카우트 의원인명 명예총재	부회장 李金器  약학 55-59 일동제약 회장	부회장 金讚淑  치의학 56-60 정이지과 병원 이사장	부회장 尹世榮  행정 56-61 SBS 회장	부회장 丁海昌  법학 56-60 좋은합동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부회장 李相周  교육행정 56-60 성신여대 총장	부회장 李垸鎔  경제 56-60 대일산업 회장	부회장 郭永秘  도목공학 56-60 도화종합 기술공사 회장	부회장 鄭潤煥  임학 56-62 일성화학 사장	부회장 吳興祚  치의학 56-61 제미동창회 명예회장	부회장 孔大植  기계공학 56-60 대영테크 시스템 사장
부회장 洪性大  수학 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부회장 孫京植  법학 57-61 CJ그룹 회장	부회장 安秉勳  행정 57-61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부회장 李相禹  행정 57-61 한림대 총장	부회장 崔秉烈  행정 57-64 대구치과의원	부회장 河權益  의학 57-63 우리들 병원 명예원장
부회장 南正鉉  건축 57-61 대우 엔지니어링 회장	부회장 吳仁錫  행정 58-62 Philip Investment 회장	부회장 禹仁性  기계공학 58-62 인터비스 시스템 회장	부회장 金殷宗  경제 59-63 뉴프라이드 그룹 회장	부회장 趙炳祐  섬유공학 59-64 유성실업 회장	부회장 許鎭奎  금속공학 59-63 일진·그루 회장

부회장 李炯均



정치
58-64
한국신문
방송인클럽
회장

부회장 辛鉉雄



지리
64-68
연세대
초빙교수

부회장 張重桓



의학
68-76
강증화
산부인과
원장

감사 朴英俊



상학
60-66
박영준
회계
사무소
대표

부회장 孫吉承



상학
59-63
SK그룹
고문

부회장 文喜相



법학
64-68
국회의원

부회장 鄭夢準



경제
70-75
국회의원

감사 朱成民



법학
68-73
김충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회장 李英默



섬유공학
59-63
제이동철회
회장

부회장 金鍾燮



사회사업
66-70
삼익기
SPECO
회장

부회장 鄭忠始



화학공학
72-76
오미아
이스트
아시아
회장

사무총장 許 瑄



정치
64-68
前총협
중앙회
사무

부회장 劉常夫



토목공학
60-64
포스코
상임고문

부회장 玄在賢



법학
67-71
동양그룹
회장

부회장 具本俊



계산통계
74-78
LG필립스
LCD
부회장

부회장 金明子



화학
62-66
국회의원

부회장 洪錫炫



전자공학
68-72
前주미
대사

부회장 柳 津



영어영문
78-83
(주)동산
회장

부회장 吳 明



전자공학
64-66
前부총리·
과학기술부
장관

부회장 李鍾基



경영
69-73
상영무역
사장

부회장 鄭八道



AIP 1기
AMP26기
코리아랜드
감파니
회장



“장학기금 모금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프로필

이사장 林光洙



기계공학
48-52
임광조건
회장

상임이사 洪性大



수학
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이사 金炯珠



토목공학
46-50
삼남
코퍼레이션
회장

이사 明泰鉉



기계공학
46-50
前총원기업
대표

이사 李禮植



약학
46-49
약대
동창회
명예회장

이사 鄭哲圭



화학공학
48-52
신앙
문화재단
이사장

이사 申明珪



생물교육
48-54
前문영
여중
교사

이사 孫一根



법학
51년
한국일보
상임고문

이사 李吉女



의학
51-57
경원대
총장

이사 安聖哲



행정
58-63
우니온테크
회장

이사 張世一



전자공학
59-63
일성
메지너이영
회장

이사 李炯均



정치
59-64
한국신문
방송인클럽
회장

이사 朴明潤



보건의학
74-76
한국
청소년
연구소
이사장

이사 金秉順



AMP 4기
한국
구아노
이사

감사 朴英俊



상학
60-66
박영준
회계사무소
대표

감사 金一燮



경영
64-69
다산
회계법인
대표



재미동문 '건립기금' 참여 열기 뜨겁다



LA지부 金殷宗동문(사진 中)이 본회 林光漢회장(사진 左)에게 장학금 건립기금으로 1백만불 약정서를 전달했다.

LA지부 金殷宗동문 1백만불 출연

최근 재미동창회 LA지부 金殷宗(경제59-63 캘리포니아 뉴프라이드그룹 회장·분회 부회장)동문이 본회에 장학발립 건립기금으로 1백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정, 지난 3월 17일 20만 달러를 보내왔다. 장학발립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金殷宗특기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金동문은 미국에서 30여 년간 기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교포

사회에 귀감이 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지부 동창회장과 상대 동창회장, LA지부 상대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제8회 冠五大大會(주)부회 수상자인 金동문은 "교단! 가정의 화목, 종교관의 확립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작은 것이지만, 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해나갔다고 생각해 출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吳興祚동문 10만불

지난 3월 17일 재미동창회 吳興祚(지의학56-61 본회 부회장)병예회장(사진 中)이 본회에 장학발립 건립기금으로 1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정, 2만 달러를 쾌척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7대 재미동창회장을 역임한 吳동문은 자치형태의 회보를 발간함으로써 미주 동문들의 결속력을 높였으며, 젊은 동문들로 구성된 '관악연대' 모임을 발족시켜 각 지부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제8회 冠五大大會 해외부회 수상자인 吳동문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달려왔듯이 앞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한 작은 일들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장여오며 10여 년간 연대 총 1억불 이상을 모금한 趙희장은 그동안 섬유공학과동창회장, AIP 동창회장, 글대 59동회회장 등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석탄·은탄 산업총합과 지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지랑스러운 가톨릭 실천인상 등을 수상했다.

오미아리스트 鄭忠貽회장



지난 4월 13일 오미아리스트아사 鄭忠貽(화학공학72-76 본회 부회장)회장(사진 中)이 본회 장학발립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鄭忠貽특기장학회' 명의로 총 1억원의 기금을 순연하게 됐다. 鄭회장은 지난 2002년 4월 23일 특기장학금 5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

鄭회장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기업의 오너라고 알고 있는데, 저 역시 스위스 다국적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이라며 "저 재산이 많아서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셀러리맨도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다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表) (본회 임원 중 주가 출연자는 순서에 따라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明泰鎭·崔相弘·禹仁性·孔大植동문

기계공학 출신 총 3억5천만원 약정

지난 4월 10일 기계공학과 출신인 明泰鎭(46-50 관악외 이사)前송원기업 대표, 한일MBC 崔相弘(54-58 본회 부회장)회장, 인터비지시스템 禹仁性(58-62 본회 부회장)회장이 본회 장학발립 건립기금으로 각각 5천만원, 대영테크시스템 孔大植(56-60 본회 부회장)사장이 4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4명의 동문이 그동안 보내온 장학기금이 총 3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明泰鎭·崔相弘·禹仁性·孔大植동문은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본회에 출연해 많은 공대 재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현재 이들 4명 모두 기계공학과 교문으로 있으며, 崔相弘·禹仁性·孔大植동문은 전임 회장으로서 모교 기계공학과 육상방안 연구기금을 낸 바 있다. 특히 明泰鎭동문은 20년 가까이 기계공학과 발전기금을 출연해왔고,

"출판한 후배들을 육성하는데 삼배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겠다"라고 말하는 明泰鎭동문은 기업으로 물러받은 임대사업으로 꾸준히 모은 기금을 동창회에 출연해왔다. 明동문이 활발한 기부활동을 펼쳐왔다면 孔大植동문은 공대동창회 상임부회장, 경원대학 동창회장 등을 지내며 동문 친목과 화합을 위해 크게 헌신했다.

40년간 산비엔지(이러전 전문업체를 운영해온 崔相弘)동문은 건축 및 산업설비의 기계·에너지·환경 및 자동차분야에서 기여할 우수한 자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대한설비공학회 최상훈회장상(관련분야 학술 및 기술발전)에 기여한 석·박사학위 논문 작성자)와 최상훈기술상(관련분야에



明泰鎭동문



崔相弘동문



禹仁性동문



孔大植동문

서 큰 업적을 남긴 자)을 제정, 기금을 출연해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관악외 이사를 역임한 禹仁性동문은 오랫동안 건설 및 운수업, 항공서비스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지난 1989년 세계적 기업과 국내 기업에 인재파견·HR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설립, 관련분야에서 높은 인지도와 사랑을 받고 있다.

1억원 출연 동문 줄이어

(주)대경 徐廷和회장



지난 4월 17일 (주)대경 徐廷和(법학51-55 본회 부회장)회장(사진 中)이 본회 장학발립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장학발립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徐廷和특기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徐회장은 충남 도지사, 중앙정보부 차장, 내부부 장관,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회장, 5선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본회 부회장, 관악발표회장으로 활동해왔다. 상훈으로 홍조·황조·정조 근정훈장, 세계김학공 훈장, 미국 육군준사관훈장 등을 받았다.

한국우드위드 李海遠회장



2002년 5월 7일 본회에 특기장학금 5천만원을 보내온 '李海遠특기장학회'를 운영해온 한국우드위드 李海遠(경제51-55 본회 부회장)회장(사진 中)이 지난 4월 17일 장학발립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약정,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순연하게 됐다.

그동안 李회장은 '李海遠특기장

학회'를 통해 모교 발대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

한국양돈산업 全東龍대표



지난 2월 16일 한국양돈산업 全東龍(수의52-56 본회 부회장)대표(사진 中)가 본회 장학발립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약정한 데 이어 4월 17일 추가로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全東龍특기장학회' 명의로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이 순연될 예정이다.

50여 년간 수의·축산분야에 전념해온 全동문은 대한양돈협회 회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축산단체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축산인상사를 장려해 축산농민과 축산업 발전에 크게 헌신했다.

유종실업 趙炳祐회장



지난 4월 10일 스포츠 및 레저용 모자 생산·수출업체를 운영해온 趙炳祐(섬유공학59-64 AIP 5기 유종실업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사진 中)이 본회 장학발립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5천만원을 쾌척, 장학발립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금을 통해 '趙炳祐특기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974년 창업 이래 모자분야에서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액 : 300억원 / 모금액 : 269억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54줄)

◆10억원

△곽영필(토목공학56-60)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종성(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오동영(조선항공54일)

△김진숙(치의학56-60)

△홍성대(수학57-63)

◆2억원

△강신호(의학48-52)

◆1억원

△명태원(기계공학46-50)

△박희배(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최오영원(생물공학67-71)

△오종준(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규(토목공학60-64)

△이예식(약학46-49)

△이지호(의학77-83)

△이희원(행정51-55)

△장준환(의학69-76)

△전두용(수리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승식(화학공학72-76)

△조병우(생물공학59-64)

△최두환(행정51-55)

△최상훈(기계공학54-58)

△최희정(생물공학58-64)

△SNUA헤딩플래닝센터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박국철(공업교육68-72)

△유중태(법학50-54)

△이승준(생물공학56-60)

△이정민(자연과학67줄)

△이종대(천문기상학69줄)

△이종현(경제학59-63)

△정재복(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농림생명과학대학동회

△농대그린장학회

△일신회(김진의(문학59-63))

△한글리SJM

◆3천만원

△남정원(건축학57-61)

△유석훈(무역61-65)

△박영희(기약70줄)

◆2천만원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상학66-70)

△김재백(약학52-56)

◆1천1백만원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60줄)

△조내규(약학58-62)

◆1천만원

△강용원(법학71-75)

△강병연(토목공학61-65)

△권동은(GP 47기)

△권학용(불어불문59-63)

△김기훈(법학58-62)

△김신영(중앙중문64-88)

△김윤중(약학64-71)

△김윤택(경제학68-70)

△김중서(경제학58-63)

△김중현(경제학55-59)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5)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병학(영어교육61-65)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정우(경제학80-84)

△박지인(경상중문40-42)

△정백현(토목공학52-56)

△산양호(경제학67-71)

△산윤식(사학55-59)

△심이력(화학공학57-63)

△안 훈(수의학53-57)

△양재대(전기공학57-61)

△오종태(임학60-66)

△윤재규(경제학45-51)

△윤영석(경제학58-64)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병재(경제학69줄)

△이병환(법학67-71)

△이영일(항공공학66-71)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장우환(경제학52-56)

△장지준(의학70-77)

△조준현(자원공학75-81)

△최남태(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하영기(정치학44-48)

△황정호(AMP 11기)

◆3백만원

△공근호(법학50-58)

△박재규(문학53-57)

◆2백만원

△이종준(법학57-61)

△이규범(AMP 42기)

△하영호(전자공학71-75)

◆1백10만원

△원우원(행정학61-65)

△이정자(국어국문50줄)

◆1백만원

△강종호(외교학76-83)

△강홍식(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병우(경제학52-56)

△권이현(의학41-47)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덕원(수의학50-54)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방연(상학52-56)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윤재(상학54-58)

△김인중(법학56-60)

△김재욱(경상법전39줄)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주영(전기공학58-63)

△김지호(화학공학55-59)

△김진익(법학55-60)

△김진우(약학54-58)

△김태현(재학학71-75)

△김홍중(수학74-78)

△박성철(법학75-79)

△박영원(지리학74줄)

△박종현(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태원(정치학46-50)

△배기현(AMP 25기)

△심장수(법학70-74)

△안지현(전자공학76-80)

△유종태(법학50-54)

△이두현(행정학74줄)

△이병목(의학54-60)

△이성호(AIP 32기)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종복(응용미술62-66)

△이중현(의학51-57)

△이학수(화학54-58)

△이호인(응용화학66-70)

△장태원(상학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필근(영어교육47-52)

△정경모(행정학65-67)

△정명희(의학65-71)

△정병일(독어독문78줄)

△정병태(정치학49-53)

△정정길(행정학61-65)

△정홍수(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병현(생물공학59-63)

△조연규(생물학48-52)

△지현진(전기공학45-51)

△전영준(토목공학67-74)

△전종일(외교학62-66)

△최동식(법학76-80)

△최명태(상학4894)

△최재덕(불문학52-56)

△최종현(법학77-83)

△홍준호(AMP 5기)

◆50만원

△곽소진(신대원70줄)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준(정치학66-70)

△김재원(경제학69-73)

△김정우(상학67-71)

△박영준(약학48-52)

△신정택(AMP 48기)

△신한우(사회교육50-55)

△우세호(생물교육60-65)

△유성삼(기계공학59-63)

△유종상(중앙중문66-70)

△이은주(간호학90-94)

△이민재(지질과학64-72)

△이정호(기계공학55-61)

△정성명(행정학68-72)

△정성호(사법학81-85)

△조달호(AMP 7기)

△조성근(행정학61줄)

△최동수(경영학65-70)

△최순철(치의학73-79)

△최환순(조선공학65-70)

△최현우(전기공학76줄)

△홍선주(경영학72-76)

◆30만원

△김삼호(중앙중문58-62)

△김유원(사대원74)

△김동진(대학원49)

△김태수(영문학57-64)

△문영대(경제학50-59)

△박우규(토목공학70-75)

△박현상(법학76-80)

△서경석(행정학67-71)

△서숙식(응용화학69-73)

△안태원(전기공학45-56)

△연기호(행정학67-70)

△유기수(통리학53-57)

△유기홍(법학58-64)

△유영준(기계공학65-69)

△이병호(공업교육63-67)

△이종환(경영학66-70)

△한동주(응용미술70-74)

△황태원(토목공학60-64)

◆20만원

△곽연규(AMP 34기)

△김우진(AMP 7기)

△양홍석(전기공학46-47)

△오근영(심리학59-65)

△조대호(조선공학81-85)

△황광원(생물교육50-54)

◆15만원

△신동주(농공학55-61)

△조 만(건축학56-60)

◆10만원

△강민식(생물학51-55)

△고상열(경영학80-85)

△고창원(조선공학64-72)

△김태원(전기공학64-68)

△김길남(의학75줄)

△김남영(토목공학69-73)

△김병두(AMP 24)

△김상철(법학66-70)

△김홍준(치의학53-58)

△김원일(공업교육63-67)

△김대원(치의학97-101)

△김도겸(공업교육71-75)

△노석준(토목공학76-80)

△문우백(기계공학57-61)

△박순치(의학66-72)

△방학원(의학53-59)

△원태현(역사교육71-96)

△유영미(의학84-88)

△유병문(경영학72-76)

△이경원(기계공학60-66)

△이영배(금속공학52-56)

△이영표(AMP 36)

악기의 명문 삼익악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金鍾燮**(사회사업66-70 SPEDCO 회장·문화 부회장)회장은 사회사업을 전공하면서 어려운 시류들을 틈잡는다는 학정시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문화에 장학발당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金鍾燮**은 이 10억 원을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할 계획이다. **金鍾燮**은 좋은 일을 위해 뜻은 있으나 용기가 없는 동문들에게 장학발당 사업에서 시작해보라고 권한다. 이에 **金鍾燮**을 만나 기부 의 뜻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왔다.

〈장학기금 10억 약정〉

삼익 악기 **金鍾燮** 회장

학제의 동문

— 장학발당 건립기금 10억원을 약정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결심하게 되셨는지?
“광소 기부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뢰할만한 기부 프로그램이 없어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장학발당을 건립해 모교 재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동창회보를 통해 알게 돼 이번에 결심을 굳힌 것이죠.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 왔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나 투자하고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니까요. 제가 뽕쳐 머느리코 보고 손자를 볼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니 조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사람들은 눈에 대한 욕심이 더 된다고 하잖아요. 욕심이 생기자 보면 영영 어려운 이웃을 위해 뽕쳐대던 학정시절의 꿈을 실천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동창회보를 보게 됐고 재학생에게 출성수병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선뜻 거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텐데.

“저는 이번 약정을 통해서 느낀 바가 큼니다. 동창회보에서 제 기사를 보고 격려해주고 참여하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거만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을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큰 제요. 간혹 방송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하면 돈이 많이 잔여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내서 사회에 봉사하고 돈은 없으나 의욕이 있는 분들은 직접 봉사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면 좋은 사회가 되겠지요.

다행히 이번에 동창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모금이 많이 되고 멋진 장학발당도 건립되리라고 봅니다.”

— 기부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로 제 전성이 사회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학당시인 66~67년도에는 실습도 많이 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고아원의 아이들을 비롯해 어렵고 불쌍한 사람

“더 나이 들고 돈 욕심 생기기 전에 기부해야”

들을 너무 많이 봤지요. 젊은 나이에 너무나 많은 힘든 사람을 본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 때 제가 느낀 것은 ‘유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서라도 이들을 돕는 정책을 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볼까, 정치 분야에 뛰어들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내 뜻대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돈을 벌어 나중에 사회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 사회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번 약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설립하신 재단을 제가 맡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이 재단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저도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욕심이 들곤 합니다. 제가 한 친구한테 이런 욕심을 얘기했더니 ‘늙어 있고 젊은 날이 벌써 그런 생각이면 어떻

겠냐’고 거정 형편이 어려워 휴학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기억이 남는데 그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음악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음악·미술 분야가 수업을 다루지



영종한 악기회사를 맡게 됐다고요. 그러나 저는 제조업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나 기타는 목재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이고 기계는 물관을 가공해서 만드는 것뿐인데 단지 품질 관리에서 차이가 있겠지. 기본적인 제조업의 특징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삼익악기 브랜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서는 2위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4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회사죠. 판매 규모도 국내에서는 현재 한 줄이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홍보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죠.”

— 현재 삼익악기 브랜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많은 장치가 많았죠. 초창기에는 부모 위키까지 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서는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정도로 어려운 위키에서도 도와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 여려울 때 가장 힘이 돼줬던 분이 있다면.

“제 아내(이영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려울 때마다 옆에서 격정하지 말고 그늘과 위로로 아껴주지 않았죠. 부모가 낳아봐 밥을 싸우면서 격정을 한 때가 많았으니 그 때마다 아내가 큰 도움이 됐죠.”

— 모교가 계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모교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영재들이 모여드는 상아탑입니다. 또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나 이 위상이 우리 나라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퍼져나가기만 하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울대학교가 발전하도록 노력해나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 노력은 서울대학교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하버드대학이 있기까지 많은 선배들이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도 많은 훌륭한 선배들을 배출했으니 그 선배들이 기부 문화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학발당 건립을 위해 노력하는 동창회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좋은 뜻을 가졌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부터든 처음에는 비롯부터 했으니까요. 장학사업 같은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개발하고 많이 알리면 좋겠는데 동창회보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활동가라면 몇 백원이 아니라 몇 천원이 모여 멋진 동창회관도 짓고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林光澤(장광)께서 동창회를 잘 운영하고 계셔서 근래에 더욱 동창회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李)

전공 실습 통해 어려운 이웃들 알게돼

“장학발당 사업 신뢰할만한 프로그램”

게 하나.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신이 확 맑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사회를 위해 일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돈만 아는 돈만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란 어느 정도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5~10년 동안은 내 마지막 꿈을 실현하기 위해 1백 억원을 마련해 사회에 기부할 계획이에요. 때문에 5~10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할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생긴 거죠.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살게 된 것은 스스로 잘 나게 잘살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이 제게 유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을 사회에 불평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 설립된 복지재단을 통해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지.
“학정 시절에 같이 입학한 친구 중 한

여러모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학문이죠. 그래서 장학혜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학정시절에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제가 받은 혜택을 이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군요.”

— 회장님께서 삼익악기 경영을 맡으면서 회사에 달린한 점이 있다면.

“2002년에 제가 삼익악기 경영을 맡았습니다. 당시 삼익악기는 적자기업이었습니다. 1년에 1백50억씩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는데 적자기업은 생존하기 어렵죠. 제가 인수할 당시 삼익악기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경영을 맡으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적자를 뺀다고 독일의 명품 피아노 제조업체인 ‘벡스타인’을 인수해 기술도입에 적극 나섰어요. 전통적으로 피아노 산업은 조율하고 변화가 없는 분야인데 다들 젊은 피가 수혈돼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 기계산업에 아슬아슬하면서 갑자기 업종이 다른 악기회사를 맡으셨는데.
“주위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선임 동창회장 인력보

유명 동창회 徐桂淑회장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

삼육대학동창회(회장대행 李在淑)는 지난 3월 29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정익(지모)교 徐桂淑(기약56-60)명예교수를 회장에 선출했다. 이에 지난 4월 10일 선임徐회장을 만나 전임 韓桂福회장의 귀족스러운 부유으로 취재했던 동창회의 분위기가 아닌 신선시방안과 저조한 학비납부 문제, 10월 동문음악회 등 신작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들어냈다.

— 어려움 시기에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제가 따라가는 것은 잘해도 위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본의 아니게 부족한 제가 맡게 됐지만, 임원들과 협력을 잘해서 전임 회장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기금 확보를 위해 안심을 열다라도 임기 중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만드도록 하겠습니다.”

— 모교에 계속 때 피아노 발전기금도 금을 주도하셨다고.



등과 협조를 구해 다양한 이벤트로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올해 역점 사업은,

“10월 15일 개최예정인 동문음악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모교 개교 60주년에 하는 음악회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李在淑(李鍾一)文裕眞동문 등이 공연해주도록 애쓰고 있어요. 캠퍼스는 구성됐고 곡목, 연주시간, 스폰서 유치 등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동문 한 명이 더 많은 찬반 사죄도 큰 힘이 될

“10월 동문음악회에 올인하겠습니다”

“92년도에 기약과장을 하면서 피아노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발족했어요. 음악회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외국 연주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금이 필요했죠.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호소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2억5천만원 정도 모은 적이 있습니다.”

— 동문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전체 동문 수가 5천7백여 명인데, 연락 가능한 분이 2천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많은 동문들이 연주회도 자기 돈 들여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 힘든 분들이 많죠. 또 외국에 계신 동문들도 많고요. 연락 가능한 동문 수를 확실히 파악하고 유명 동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가 고향인徐회장은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처음 피아노를 접했다. 프랑스 파리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69년 모교 전임 강사로 부임해 2002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올해古稀를 맞은徐회장은 제자동문회(회장李順星)가 결성될 만큼 후학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들과 매년 가을에 연주회를 갖고 있다. 부군인 명동인과 金在善(생물교육 53-57 기동리의대 명예교수)원장과 사이가 기약(철문, 바이올린)을 전공한 두 딸이 있다.

선임 동창회장 인력보

ALP동창회 黃義興회장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동창회는 지난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黃義興(중문68-72·법학 74점·ALP 1기)대표를 선출했다. 黃회장은 “여러 단계에서 수장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 회장으로서 동창회 기업을 잡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소감은,

“그동안 많은 도움과 받아 오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부족 한 것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과대

확인하고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음 보완연락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때문에 회장이 되자마자 연락을 전할 지원을 했습니다.”

— 계획 중인 사업은,

“첫 번째 사업으로 4월 15일 골프대회를 개최했으며 5월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 조찬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밖에 회원들이 대표로 있는 직장을 방문해 동문간 교류의 폭을 넓혀 볼 생각입니다. 또 강연에 ‘비코드’란 와인전문점을 사람방으로 정해놓고 수시로 와인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어떤 회사인지,

“상표와 기계 특허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고객은 현대자동차이고 프랑스의 루브르랜드 상표를 주로 만아서 일했습다. 직원은 40여 명입니다. 우리 일은

“사랑방 ‘바코드’서 와인 즐기세요”

학에서는 국내 유일의 최고지도자과장이란 자긍심을 갖고 우리 동창회가 계속 뻗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지난 2004년 개설했던 현재 3기생까지 총 1만2천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정 특성상 변호사 인사가 많고 그 밖에 일반 기업 임원, 교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동창회 조직 전부터 기수별로 군포·동산 등의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져왔습니다.”

— 동창회 운영의 주안점은,

“어떠한 모임이든 정하면 지키고 회원들의 참여를 끊임없이 독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임 한 시간 전까지 참석여부

무망의 재산을 문서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IT·문화 콘텐츠 사업 등 지식산업이 성장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고향인 黃회장은 국제변리사면임 한국협회장, 서울 성남고등학교장, 서울신문사 편집장, 尹泰昌의사 기념사업회 산하 월간지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단계에서 수장 경험이 풍부하다. 또 “인간관계 손자병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유배교실이 답이다” 등의 책을 저술한 정도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부인과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김포, 김포(경인4단)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南)

“모차르트와 함께 한 50년 ... 그의 탄생 250주년이라 더욱 특별하죠”

동문을 찾아서

申 秀 貞

모교 음대 학장

대답:

본문 朴聖姬는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申학장을 만나 50년의 음악 인생과 학장으로서의
고민, 계획 등을 들어봤다.

자녀에 모교 음대 첫 여성 학장으로 화제를 모
았던 申秀貞(기아59-63) 동문이 피아니스트 데뷔
5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데뷔 곡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작곡
한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이라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최근 서울시향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
곡 20번 협연으로 '모차르트 연주여행'을 출발한



—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음대의 첫 여자 학장이시죠. 졸업생 재학생
할 것 없이 여학생이 훨씬 많을 텐데요.

“간호학과 생활과학대를 빼면 여자 학장
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많아졌
어요. 鄭聖姬총장 집행부에서 여자 차장도
여러 명 나오고, 게다가 다들 놀려야 뛰여
나 정말 일을 잘 하시고요. 내 경우 실은
학장이 되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더 많아 여자여서 된 것 같아요. 저
는 서울대를 떠나 경원대에서 11년간 있다
돌아온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金正圭교수
님께서 장원을 원투고 교정선생님으로 가셨
어요. 안 그랬으면 못 왔겠지요. 경원대에서
8년 동안 학장을 했으니 흥분하다고 생각했
어요. 일본에 있는 미키모토 선생님과 피아
노를 어떻게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얘기하
면서 장년을 마감하리라 생각했는데. 숲
전임 학장이 음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하셨지요. 내실을 다지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 피아노를 하게 된 계기를 전해주지요.
그 시절엔 음악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럼요. 게다가 시골에 있었어요. 아버
지께서 육원중학교 교정선생님이요 어머니
는 선생님이셨죠. 관사에 살았는데 학교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40년대 말이나가 피아
노라고 해봐도 미국 구호물자예요. 어머니
가 성서사범 출신이신데 학교 다닐 때 일본
사람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어머니에게 오
르간을 가르치는 등 자활을 했대요.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던 차에 학교
에 피아노가 있으니 배워보고 싶었어요.”

— 어머니가 가르치셨네요.

“학교 음악 선생님이래 배웠어요. 이상하
게 바이엘 7권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아버
님이 친구하셔서 청주로 갔더니 다소 큰 도
사라 그랬는지 피아노 치는 학생이 3~4명
있었어요. 그러다 6·25전쟁이 났는데 서울
에서 피난 온 선생님이 제 연주를 듣더니
‘항주에 있지 말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하
란다’고 하셨어요. 전쟁 중이었는데도 불구
하고 어머니께서 저(초등학교 6학년)를 데
리고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대구로 갔어
요.”

— 그 전쟁 중
에 레슨을 받으
러 갔던 말이에요.
세상에.

“그랬어요.
1920년대에 시베
리아 철도를 타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
던 첫 한국유학생인
李慶父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아북 분들이 원래 일
찍 개화됐던 데다 선생님 아머
님 목사님이셔서 일찍 유럽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당시엔 아주 드문

1회 동아콩쿠르 우승·모교 음대 첫 女학장

“오늘의 자리는 격려해 주신 스승들 덕분”

경우였죠. 李慶父선생님은 모든 선생님의
선생님이세요. 鄭聖圭선생님도 그분께 배
웠죠. 당시 대구엔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많았어요. 요즘과는 달라요 그때 역시 치맛
바람. 음악이론이 있었던 거죠. 우리 어머
니도 그렇고요.

선생님은 정통으로 피아노를 배우신 분인
만큼 몸 하나하나를 굉장히 철저하게 기르
셨어요. 나는 나이에 어리고 키도 작고 손
도 작았는데. 그러다 내 무엇에서 재주를
보냈는지 나를 당시 집어다 두고 가르쳤어
요. 그해, 그러니까 1952년에 제1회 이화
경향 콩쿠르가 생겼어요. 임시 수도인 부산
에서 열렸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해요.”

— 그러게요. 그 전쟁 중에 음악콩쿠르를
창설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이화여고 교정선생님이신 辛載
非선생님은 우리 나라 예술교육의 선각자였
죠. 미국 한번 안 가보신 분이. 林元繼선생
님이 그해 35세이셨는데 이화여고로 모셔온
뒤 대회를 열어보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피아노 부문 음모자란 40명이 넘었어요. 청
주에서 경향신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 콩쿠르를 한다니까 놀라게도 음모를 한

거예요. 李慶父선생님께서 ‘예는 기초도 안
돼 있는데’ 하시면서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
어요.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온 정쟁한 아이
들이었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촌리가
꼭꼭 묻어지는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본선 2등을 했어요. 1등은 金永
旭씨 누나 김덕주 씨가 됐고요. 지금은 손
을 다쳐 활동을 못하고 계시죠. 韓東一씨도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미소녀가 있음가 싶
었어요. 李慶父씨도 그때 함께 입상했죠.
바이올린 특상을 했던 이기훈 씨는 유럽에
서 일찍 돌아가지고요. 입상을 한 덕에 부
산 이화여중으로 전학하고 53년 환도 후 서
울에서 다녔는데 갑자기 여진이 나빠져 청
주로 내려온 뒤 한 단에 한번 서울로 레슨
을 받으러 갔어요. 1956년 예고 1학년 때
가 모차르트 탄생 2백주년에서 선생님이
모차르트 탄생 2백주년 기념 ‘李慶父 문화
생 발표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모차르
트 협주곡 20번’을 연주했어요.”

— 그러니까 그 때 데뷔 연주가 된 셈이죠.
“그렇죠. 그때 金生龍씨라고 해군정훈을
악대 지휘자께서 오셔서 듣고 해군정훈악
대 3월 정기공연에 세게 해주셨어요. 피아
노 연주는 1월 27일 모차르트 생일, 정식

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건 3월 29, 30일. 李慶父선
생님이 콘트라베이스, 韓東
一씨 아바님(한인환)이 팀파
니를 하였던 기억이 나요. 사
실 ‘마이네’는 모차르트 피아
노 협주곡 27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곡인데 말이지요. 실은 아
버지께서 일본사람에게 받은 약
보 가운데 그게 있어 치게 된 거
예요.”

— 아버님은 꽤 전공하셨네요.

“사범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예가 전문이셨지만 워낙 음악을 좋
아하셨죠. 우리 형제들은 공부하란
말은 듣은 적이 없고 그저 ‘피아노 쳐
라’는 소리는 들었죠. 저는 책 읽는 건
재미있었고, 진도 아닌 학교의 어두운
컴한 곳에 가서 피아노 치기는 싫었
는데 말이지요. 중학교 때는 ‘어디 피아노
등원이 있다더라’ 하면 여기저기서 부
품을 구해 댈는 조립피아노로 연습했어
요. 정식으로 피아노를 갖게 된 건 예
고 1학년 입학한 뒤였지요.”

— 동생은 화가시죠.

“秀堯도 피아노를 했는데 초등학교 3학
년 때 서울에서 내려오신 丁昌燮선생님(화
가)께서 그림을 보고 색깔이 타났다고
그러셔서 바쳤죠. 모든 대화에서 특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의 피아노대회, 동생
의 그림대회를 찾아다니시느라 힘드셨죠.
‘언니는 소년피아니스트로 협연, 동생은 전
시회를 한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죠. 호
랑이 답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당시 유일
한 공연장이라는 게 명동 국립극장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교복바지에 새동조리코를 입고
운동복 신고 했어요.”

— 지난 4월 데뷔 50년 만에 같은 곡으로
모차르트 탄생 2백50주년 기념연주회를 하
셨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베트남 국제콩쿠르 심사 차
갔을 때, 우연히 鄭聖姬씨 연주가 있었어
요. 옛날 브람스가 지휘했던 홀에서 피아노
케스트라를 이끌고 ‘말리교향곡 8번’을 지
휘하는 걸 듣고 무대 뒤에 가서 ‘내가 내년
이 데뷔 50주년이고 서울시향교향악단과 했
으니까 그 곡을 다시 한번 같은 오케스트라
와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가 아주 선선히
워진 거예요. 인연이란 게 참... 저는 鄭聖
姬 큰 누님 정영소 씨와 동기생이요.

鄭聖姬씨를 보면 존경스러워요. 순수하
게 음악에 몰두하고 사는 걸 보는 것만으
로도 굉장한 자기가 되는데, 연주록 그뿐
게 편안하게 해줄 수 없었어요. 어려서서
멋모르고 한 D단조지만, 이번엔 정말 다
시 한번 모차르트의 위대함, 영원성을 생
각했죠. 2악장을 완전히 대중화 돼있지만
그 깊은 아름다움은 정말 가슴속까지 파고
들죠. 또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
고 그 사이 여러 모습을 뒤돌아보고 오늘
날까지 겪어오게 한 모든 인연들에 대한
감사, 하나밖에 대한 감사, 어떤
것들이 그 음악회를 뒤라야 해야

공트 릴레이

처처 내리자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아직도 좀 쌀쌀한 공기가 몸을 스쳤다. 앞산은 겨울에서 깨어나는 듯 봄기운이 사리고 차도 옆에는 국화기계가 여러 잔히 젊은이들의 손길을 잔고 있었다. 달라진 것은 간식걸이를 준비하는 등산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유쾌한 쉼탈교문에 들어서는 차가 많이진 것이다.

방길을 교문 안으로 옮겼다. 대형 교문이 뻗어들어듯이 안으로 저절로 들어갔다. 많은 건물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멀리 관악산의 정상이 보이고 본부 건물과 경영관과 디지털본부 사회과학관이 한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 일년이 지나네요. 활짝 피었거든요. 오실 거죠. 오셔서 또 한해가 시작 되잖아요." 미쓰 최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30년을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악의 산증인이다.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옛날 그대로 미쓰 최라고 불렀다. 미세스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친근미가 있고 듣기도 싫지 않는 것이다.

"아직 이렇게 쌀쌀한데 벌써...," 나는 반가운 목소리에 토를 달았다.

"선생님! 봄이 오는 것이 싫으신가 보죠. 춥고 변덕스러운 겨울을 아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물론 아서 벗어나야지. 번덕을 이겨 견딜 수가 없는데. 정말 산수유가 피었대구요?"

"두 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내일 올 거죠. 기다릴게요. 그 집 짜장면 사드릴게요."

가슴이 뻥뻥하게 뚫리는 듯했다. 춥고 긴 겨울의 타인을 벗어나는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땀과 함께 유색너스럽게 서 있던校舍가 공대, 농생대까지 들어오고 각종 연구센터가 들어서서 캠퍼스가 엄청나게 커진 듯도 있지만 조경이 잘되고 나무들이 커져 캠퍼스가 웅장하게 보였다.

정년 뒤에 대학에 들리는 일은 그리 멀지 않았다. 처음에는 지도학생도 있고 해서

산수유 巨木



丘仁煥

(국어교육50-54)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별로 정년을 한 것같이 앓다가 이삼년 지난 뒤에는 마음은 가지만 자주 떨리지 않게 되었다. 아뵈에 있으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관악캠퍼스에 들리는 일은 공식적으로 두어 번 있어서 캠퍼스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물론 막시하의 심사나 다른 일이 있어서 들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가을 개교기념일 전후해서 총장이 초청하는 명예교수 간담회는 꼭 참석하고, 스승의 날 전후하여 사대 학장이 초청하는 스승의 날 행사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한다. 이 두 모임은 고난을 같이 하면서 학문의 전상들을 이룬 교수님-세상을 주름잡던 노교수들과 우의를 같이 하는 회포에 젖는 만남이다.

5월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사대부고 총동창회 체육대회에도 전직교사로 가끔씩 참석하니 캠퍼스가 그리 낯설지는 않다. 개나리 진달래가 만물지는 좀 쌀쌀한 날씨에 국어교육과 사무실 앞에 있는 산수유가 노랗게 필 때면 관악캠퍼스를 찾아 신촌의 향수를 느끼며 옛날의 향수에 젖어간다. 정말 나무들이 웅장하게 자라 연두색으로 물들어지는 버들골이나 단풍으로 어우러진 정경은 전부를 다져 가는 관악의 고풍스러운 캠퍼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건 여기에 심는 게 어렵네요." 삼십년 전 졸업한 대학들을 관악에 종합화하여 캠퍼스 인동이 땅에 여기 저기 서 있는 캠퍼스에 나무를 심을 때에 마흔 산수유를과 앞에 심는 것이 이제는 느리나무같이 가지

를 뻗어 노랑꽃으로 봄의 전령사가 되었다.

운동장을 끼고 올라가자 우뚝한 구호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80년대 초 학생 군사 훈련에 교수들까지 참관시켜 추위에 떨면서 서 있던 노교수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권력의 횡포 앞에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지식의 안타까운 시절의 평안이 주마등같이 스쳐갔다. 본관을 지나 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 앞에서 발이 멈췄다.

아크로폴리스 광장! 도서관에서 자유를 외치면서 투신한 젊은이, 광장에 웅집한 학생들에게 자유를 외치던 학생들의 외침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 왔다.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그렇게 자유를 먹고 펼쳐지는 피어난 눈물의 광장이다.

이 광장의 열기로 걸어가면서도 각 분야의 토끼를 말하는 발췌듯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관악인의 어지간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서쪽은 첨단 공학관으로 새로운 타운을 이루고 음대, 미대 위에도 새로운 연구기관이 들어서 순환도로가 꼭 차게 느껴질 정도로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서 옛날의 호젓함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층은 한참 올라가서 언덕 아래에 있는 주로 사대가 쓰는 교사이다. 나중에 생긴 마을 버스를 타고 내려와 언덕 아래 건물 사이를 걸어 들어가면 운동장이 있는 작은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의 옆 옆으로 국어교육과 사무실이 있고 그 밖 길가에 산수유나무

가 서 있다.

나는 건물 안에 들어서자 낯익은 벽화에 대해 강의실이 눈에 띄었다. 천정에 온 것 같이 평온하고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대형 강의실로 발발이 자잘로 옮겨졌다. 넓은 강의실이 한 눈에 들어왔다. '문화계론'을 열강하여 5백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경청하던 그 열강들이 눈앞을 스쳐갔다. '선생님! '지성과 사랑', '페스트'의 열강에 가슴이 켜져 무엇인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 학생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산수유를 보시지요."

미쓰 최가 옆에 서 있었다. 대학생을 둔 엄마로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는 어떻게?"

"선생님 오신 줄 다 알고 대기하고 있었지요. 아서 가세요."

"교에 먼저 들려야 할 게 아닌가. 차 한 잔 들고 전철로 새로 준공한 교육정보관도 보면서 가도 될 텐데."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편고 있는 산수유를 보시지요."

미쓰 최는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갔다.

비베 앞서 걸어가 산수유 앞에 발을 멈췄다.

셋노란 산수유가 활짝 피어 나무를 뒤덮고 있다. 가지가 아치를 넘을 듯한 외적한 巨木으로 같이 지나온 역사 어린 캠퍼스를 굽어보며 차가운 듯하면서도 웅한 웃음으로 온 나무를 수놓아 차가운 봄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어찌세요, 쌀쌀한 듯하면서도 고운 노란 색으로 봄기운을 안으로 끌어안고 있지 않아요?" 나는 두아 중에 산수유의 환대에 가을의 그 환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생님! 여기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파에 가서서 차 한잔을 드셔야지요."

김조교가 어느새 옆에 와 서 있었다.

"선생님! 짜장면을 드셔야지요. 옛날 맛 그대로예요."

두 사람의 말이 포근하게 들렸다. 그 자리에 선 채 산수유의 환대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투자한 만큼 배우기 바란다

기원시리즈 '세계대학 경쟁력 탐사보고서-영문대 교육혁명'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 3월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와 캔버라의 호주국립대(ANU)를 방문했다.

호주 대학은 유럽 특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전통과 미국 대학 제도의 특징이 반반씩 섞여있다. 예를 들어 총장을 미국처럼 프레지던트라 하지 않고 영국의 전통에 따라 바이스 찬슬러라고 부른다.

캔버라에서 20년 이상 살았다는 한 한국인 교수님은 바이스 찬슬러가 결코 부총장이 아니니 기사를 쓸 때 유의하라고 신신당부했다. 한국에서 손꼽힐 만큼 있을 때 총장과는 면담을 주선하면서 동역을 맡은 사람들이 바이스 찬슬러를 부총장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부연설명을 들었다.

칼리지와 단과대학이 아니라 기숙사인 것은 유럽보다는 미국식 대학 제도에 익숙한 필자에게는 낯선 점이 있었다.

캔버라 ANU에서 만난 김하영 교수님은 여러 면에서 인상적인 분이였다. 1974년 유신헌법이 공포된 지 2년째 되던 해 한국에서는 살기 어려운 혼자 호주로 떠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유신과 종화화공업-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란 책을 썼다.

스스로도 "한국을 떠나온 이후 모국과 거의 차단된 생활을 했는데 박정희 시대를 주제로 책을 내다니 세상사가 참 오묘하

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캔버라에서 살았지만 집과 학교밖에 보고도 한국만큼 쓸 기회가 거의 없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북한에서 왔다고 오해할 정도로 예전 양식의 서울말을 구사했다. 하지만 여성관에 있어서만은 현재 서울에서 사는 사람보다 진보적이었다.

서울에서 유학 한 박사과정 여성 대학원생이 한국의 지도교수로부터 들었다는 "알래스카를 가는 해외일을 기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열광해 반박했다. 한국의 대학이 너무 미국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박사학위만큼 중요한 것이 배우자 선택이란 말도 빼놓지 않았다. 아직 한국 남성의 가족관은 여성만큼 깨지지 못해 논문만 붙잡고 있다라는 결국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박사과정은 외롭고 힘든 길이니 들어서기 전에 개인의 행복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특히 여학생들에게 강조한다고 말했다. 여성으로 살아 온 교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절절한 충고였다.

호주에서 만난 총장과 교수들은 한국의 서울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황병철 전교수에 관해서는 교내 신문의 1면에서 연구원들을 주제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멜버른 대학교의 클린 데이비스(45세)



尹昌秀

(지리교육93-97)

서울신문 국제부 기자

총장은 黃 前교수 사택에 대해서 "경쟁이 심한 과학자들 세계에서 알아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진심을 알고 나서는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홍보활동 가운데 네거티브 전략도 있다. 정치면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강조하거나 물건을 팔면서 안 좋으니 사지 말라고 해서 이득을 끄는 것이다. 비록 좋은 일은 아니지만 불뚱 타지듯 쏟아진 외신보도를 통해 서울대란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니 네거티브 홍보의 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역시 멜버른 공대 전자공학과의에서 만난 한국인 교수님은 "솔직히 한국의 서울대

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보다 호주의 대학이 뛰어난 점은 없다"고 찬란 말했다. 다만 해외에서 유학생을 모집하는 등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전자공학에서도 2~3개의 전공만 특화하는 등 학문적 깊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백화점식으로 잡다하게 '학문적 좌판'을 펼치는 한국의 대학보다 오히려 호주 대학들처럼 한 가지 분야의 우물을 깊게 파는 것이 대학 평가를 잘 받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ANU 유전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솔씨 학생 역시 "아직 영어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강의의 수준이 모교보다 높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수업내용이 즉각 MP3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라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다시 듣고 파악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심원정비나 기자제도 훨씬 공부하고, 실험시간이 많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것도 국내 대학보다 나은 점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대학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멜버른으로 향하던 비행기 열 좌석에서 우연히 만난 멜버른대 유학생이 떠올랐다. 아토퍼로 고생하며 홀로 힘든 유학생생활을 버티는 그의 고민은 장학금은 적고 학비는 비싸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한국을 떠나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투자한 만큼 배우기를 바란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돈으로 미래를 살 수는 없어

한 취재원이 토익에서 컵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했다. 그 취재원은 취업 준비생으로, 입시처럼 당락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영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나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항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각종 시험 부정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보도만 있었을 뿐, 생생한 '현장'을 포착해 보도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취재는 먼저 취재원이 직접 앞선자를 만나도록 한 뒤 그 자리에 나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접선'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약 30분 정도 앞선자를 만난 뒤 그 취재원은 기가 막혀했다. 앞선자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먼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방법, 불러주는 답을 듣기 위해 귓속에 무선 이어폰을 집어넣는데, 아주 작아서 고개까지 닿을 정도로 깊이 들어간다고 했다. 곁에서는 전혀 볼 수 없을 뿐, 소리도 고막 안쪽에서만 전달된다고 한다. 두 번째 휴대 전화를 이용한 컵,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보다 훨씬 진화한 수법이었다. 웃소매 속에 전화를 붙이고 역직이 보이도록 소매에 구멍을 내 그 사이로 답을 보는 것이었다.

비용은 각각 4백만원, 3백만원, 시험이 끝난 뒤 네거티브들이 인터넷에 '복합'해 놓는 답과 비교해 보다 만족스러운 답을 구하면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이렇게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까지 생명을 걸으니 의욕은 더더욱 강해져 갔다. 두해 확실해졌다.

취재원이 직접 컵의 의뢰를 해 보기로 했다. 먼저 조심스럽게 이메일로 접촉을 시도했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지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메일에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써 보내자 앞선자로부터 바로 전화가 왔는데, '보안'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 컵금 계획을 모두 취소해야 하며, 취재진에게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물거품이 될 미망. 누구에게 들었냐고 집요하게 캐묻는 앞선자. 친구가 누구인지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무기전용 거꾸로 설득해 끝내는 단념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휴대 전화로 답을 전송 받기로 했다.

드디어 시험 날! 앞선자가 알려 준대로 웃소매를 잘라 '장비'를 만들었다. 만능이 아니니 또 한 번 기가 막혔다. 정말 듣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험 접수까지 해 봤지만 굳이 시험을 직접 볼 필요는 없었다. 휴대 전화로 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그 답이 진짜로 맞는



李善娥

(불문98-04)

YTN 기획취재부 기자

다만 병고!

시험이 시작된 뒤 회사에서 가까운 한 대학교 빈 강의실에서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답 보내는 시간을 미리 정해 놓는 데, 첫 번째 답은 시험 시작 40분 뒤였다. 5분 전부터 카메라는 휴대 전화를 주시했고, 함께 있던 취재진은 모두 입이 타들어 갔다.

10시 43분, 도착한 메시지는 1부터 4사이 숫자가 배곡하게 적혀 있었다. 말로만 들은 부정행위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니 모두를 아찔한 긴장감도 느끼는 듯 했다.

약속한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메시지가 도착했고, 우리는 박찬(?) 가슴을 안고 리포트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몇 명이 컵을 했는 것이었다. 기자라고 밝히자 앞선자는 무장기는 사용하지 않았고 휴대 전화로만 대여섯 명 했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었다.

보도된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한 달 남는 수사 끝에 20명 적발, 컵을 의뢰한 사람은 모두 17명이 나왔고, 대부분 750점 이상 고득점 했다. 900점을 넘는 사람도 있었고, 컵을 3번이나 한 고등학생도 있었다. 무장기를 이용한 컵도 당연히 이뤄졌다. 일당이 3명인데 주모자는 계속 잡히질 않고 나머지 2명만 구속됐다. 법정이 무장기도 하지만, 경찰 말로는 기자를 해코지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단다. 그래도 가끔 '그'의 보복이 두려울 때도 있진 않다.

부정 시험의 피해자는 누구보다도 밝았 거리지 않고 성실해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보도가 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로 없었다면 컵의 의뢰자들은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취직도 했을 것이다. 노력이 아닌 돈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내려 했던 사람들을 사회에서 추여내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때는 데서 '기자 이선아'를 진심으로 주고 싶다. 앞으로 더 속속 커 나기기를 내 자신에게 기대해 본다.

재학생의 소리

선배님, 댄스스포츠 함께 해요



金善娥

(수학교육03입·4학년)
댄스스포츠부 주장

재미있고, 운동효과도 훌륭하고 게다가 친목까지 자연스럽게 다질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그보다 완벽한 운동이 있을까요?

서울대 댄스스포츠부 '스핀'은 재미있고 몸매도 가꿔주며 친목까지 두터워지는 운동-댄스스포츠를 즐기는 서울대인들의 모임입니다. 영화 '댄서의 순정'과 '열여덟의 연가'에서 선보인 섹시한 라틴댄스와 우아한 모던댄스 모두 댄스스포츠입니다. 사교적 목적의 볼룸댄스에 스포츠적인 요소, 즉 스피드와 파워가 가미돼 정밀한 것이 댄스스포츠로서, 본래의 볼룸댄스의 사교적 측면과 스포츠적인 요소까지 모두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죠.

최근 대중적으로 영화로 제작되는 댄스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면서 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자 스핀에 관심을 가지는 학우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가입하려는 학우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스핀은 2002년 창단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2회의 정기공연을 비롯한 교내외 행사에서의 공연과 파티 및 강습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스텝과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초급강습에서부터 어려운 고급수준의 춤목이나 모던댄스를 배울 수 있는 중·고급강습도 감독님과 코치님의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핀부원이자면 누구든지 참여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춤목을 배우고 나면 대동제와 정기공연의 무대에 선 수도 있고, 스핀에서 마련하는 여러 가지 파티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스핀에서는 연 2회 오픈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이는 스핀을 거쳐 간 선배들과 현재 스핀을 만들어 가는 모든 사람들이 춤을 통해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스핀 부원들은 차차차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는 연습실에서 일상의 활력소인 댄스스포츠를 추며 더 큰 열정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스핀 파이팅!

학술교류 해외대학 1백개 넘어

명실상부한 국제화 앞당겨

서울대총장 취임 이후 국제화에 노력해온 모교가 해외 1백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대의협력분부는 지난 3월 8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음으로써 지금까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수가 1백개를 넘어섰다고 지난 4월 13일 밝혔다. 그동안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해외 대학과의 교류가 부족

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모교는 지난 2002년 총장 취임후 모교 국제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 결과, 2년만에 학술교류협정 대학수 2배 가량 늘어났다.

지금까지 모교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은 31개국 1백1개 대학이며, 실제 학생 교환이 이뤄지는 특별협정을 맺은 대학도 23개국 67개 대학에 달한다. 현재 학술교류협정이 최종 단계에 와 있

는 해외 대학이 3~4개, 협정을 추진중인 대학도 10개 가량 돼 총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까지 1백20여 개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의협력본부장은 "서울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들은 진적외로 양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며 "이들만이 학술교류협정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학술교류협정 체결 대학 수가 1백50개 수준까지 확대되면 명실상부한 서울대의 국제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교 소식

국민은행, 모교 병원에 3억 기부

난치병 어린이 치료 돕기 일한

지난 4월 20일 KB국민은행(은행장姜正元·사진 左)은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료 위해 모교 어린이병원에 3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모교 병원 成相賢원장과姜正元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병원에서 전달식을 가졌으며 미술사 최현우 씨의 미술공헌과 배에로 공연 및 저금통 제공 등 어린이 환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은 그동안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원, 각종 재난 시 재난구복 성금 모금 지원, 미아찾기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영입점 평가를 사회공헌 활동 실적에 반영하는 '사회공헌활동



평가 기준 제도'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사회공헌에 화환에 앞장서고 있다.

동국대와 학술교류
을 체결하기부터 시행

모교 總長총장은 지난 3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국대 洪根三총장과 학정교관, 공동연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학술자료 상호교환 등을 담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두 대학 재학생은 이번 여름 계절학기부터 미리 지정한 학점교환 교과목에 대해 소속 대학에 수강신청을 한 뒤 상대방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 체결로 두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연구와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학술자료와 출판물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국제협력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생명공학연구와 교류 협정
공동연구·인력 등 협력

모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원장徐鎭鎭)은 지난 3월 2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연구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연구원은 신약, 생체조직세포, 기능성 생물소재, 합성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연구, 인력 및 학술 정보 교류 등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과대학·모교 병원

SCI에 논문 1천여 편 발표

의과대학과 모교 병원 교수들이 지난해 발표한 SCI 논문이 국내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최초로 1천 편을 돌파했다.

지난 4월 19일 집계에 따르면 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의대와 모교 병원 교수의 논문수가 1천52편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4백96편, 2001년 6백16편, 2002년 6백85편, 2003년 9백15편, 2004년 9백17편에

이어 국내 처음으로 1천편을 넘어선 것으로, 의료 선진국과 본격적인 의학연구 경쟁을 통한 의료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의대와 모교 병원이 국내 최고수준의 의학연구 메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또 의대와 모교 병원이 발표한 SCI 논문은 모교 전체 논문에서도 3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상의학연구소 申相久소장은 "충분하지 못한 연구비, 인력, 시설 및 막중한 진료부담 등 어려운 환경에서 교수들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모교 병원이 경영상 부담이 큰 대규모 임상의학연구소를 과감히 건립해 의학 연구에 투자해온 결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모교 병원은 지난 4월 19일 SCI 논문상 시상식을 갖고 'IF (Impact Factor)' 최우수상에 姜大熙(예방의학)교수, 우수상에 金孝珠(내과학)·李秉珠(책의학)교수 등 14명에게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여했다.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②

아크로폴리스 광장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발달을 주도했던 아크로폴리스 광장. 이곳은 독재 정치가를 추방하고 근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장소였다. 이 곳의 이름을 따라 모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광

장의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민주화가 이뤄지기를 염원하는 정신에서였다.

80년 5월 '서울의 봄' 당시 이곳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열원의 목소리가 퍼져 나갔고 오늘날 그 정신은 사회 곳곳에서 피우고 있다.

그러나 격세지감을 느끼듯 최근 총학생회는 학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집회 금지 공약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황리열 총학생회장 당선
가수·백댄서 등 특이 이력

제49대 모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비운동권 선거운동본부인 '서프라이즈'의 종교학과 3학년 황리열군(사진)이 45.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황 군은 "학생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세로움이라는 코드가 온 좋게도 저희와 맞아떨어진 것 같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차관 학생회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서프라이즈 선분과 2위와의 표차가 적어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결선투표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재선거를 치렀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아 연장투표까지 진행했다.

신인 총학생회장에 선출된 황 군은 '놀(NOL)'이란 이름으로 인대 3만원을 노미 가수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이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학생이다.

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약자로 황 군이 자서, 작곡, 편곡,



연주, 프로듀싱까지 모두 도루아 2장의 앨범을 내기도 했다.

가수 외에 레코드 회사의 대표이자 게임업체 대표로도 활동해온 황 군은 해병대 출신이다 합기도 사범, 무에타이 프로선수, 나이트 클럽 DJ, 공사장 인부, 군고구마·배우 장수, 동대문 옷가게 지게꾼, 호객꾼, 백댄서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부업을 하면서 독특한 이력을 쌓아왔다.

황 군은 "추락하는 서울대의 위상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장학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업난

과 학생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이런 공약이 일기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향 鄭明勳감독

관악캠퍼스서 공연

마에스트로 鄭明勳씨가 서울시 교향악단을 이끌고 모교 관악캠퍼스를 찾았다.

서울시향은 지난 4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찾아가는 시민공연'을 열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1·4악장과 제6번 '전원' 1악장을 비롯해 대관성 오케스트라의 장중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바르토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했다.

이번 '찾아가는 시민공연'은 올해 서울시향 음악감독에 취임한 鄭씨가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시민을 직접 찾아와 공연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한 공연이다. 현재 구민회관, 도서관, 병원, 교회, 예배당 등 공공시설을 부대로 활용해 무료로 공연되고 있다.

'EU 센터' 개소
지원사업 본격 활동

우리 나라와 유럽연합(EU)의 종합 협력장기 역할을 하게 될 'EU 센터'가 지난 4월 20일 모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모교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EU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 하에 운영하기로 한 'SNU-KIEP EU 센터'는 이날 개소식 이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올해 국내와 해외에서 국제학술회의를 한 차례씩 열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학생들과 연구원 70~80명을 EU 지역에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국내 대학들과 EU지역

대학들 사이의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EIT(연구·초과점) 강 의 개발, 한·중·인 젊은이들을 위한 여름학교, 각종 회의 개최 및 출판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0여 년만에 첫 증축

모교 관악캠퍼스 학생회관이 건립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증축된다.

지난 4월 6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교 관악캠퍼스 학생회관의 높이제한 완화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교 관악캠퍼스 학생회관은 5층에서 6층으로 층고를 높이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후)

서울대 가족

李儼九 하나기술 회장

남동생 4명·아들·조카 등 11명이 동문

“6월에 아우들과 멋진 추억여행 떠납니다”

길을 걷다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자식을 일으켜 줄 수 있다면, 흠은 남아 일으켜 줄 자 없는 이보다 얼마나 든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30여 년간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로 활약하며 현재 레이저가공기 생산업체와 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 李儼九(상학56-61 하나기술 회장)동문은 이처럼 남다른 우애로 삶의 喜怒哀樂을 함께 해온 다섯 명의 든든한 아우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故 李鍾義의 장남인 李儼九동문 아래로 차남 李賢九(화학공학58-62 모교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원 명예 부원장)동문, 3남 李正九(의학59-65 단국대 이비인후과 교수·前의정부총장 겸 의원원장)동문, 4남 李振九(고려대 통계학과 졸업)씨, 5남 李凡九(물리69-73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동문과 6남 李弘九(수학72-76 미주대학 수학과 교수)동문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맹목하고 있다.

“학구적이었던 부친께서 일찍이 기업가로 나서 인천에서 사업을 크게 펼치셨는데, 집안 형편이 좋았다면 학자의 길은 걸으셨을 거예요. 아우들이 교육자로 가게 된 것도 그러한 기질을 물려받아서일 겁니다. 저 역시 한국은행 조사부 시절, 개발과 물결에 맞춰 발간한 ‘국제금융론’이 대학교재로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면서 20년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침되고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효와 무예를 중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당시 6명제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지금까지도 친척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가며 한번 땀은 인강관계는 절대 잊지 않고 있지.”

부친자존이려코나 할까. 李儼九동문의 장남 李韓熙(국제경제82-86 매일경제 리서치 헤드 전무)동문은 2000년대 초 한국의 베스



앞줄 좌로부터 李鍾義동문, 두 명 건너 李儼九동문, 가운데 줄 좌로부터 李正九·李凡九동문, 세 명 건너 李賢九동문, 뒷줄 좌로부터 세 번째 李南九 李弘九동문

트 애널리스트로서 JP모건 홍콩지점 부사장,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금융분야 전문가이자 경제칼럼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또 화학공학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李賢九동문이 미세소재화학 재학시절, 지도교수와 함께 2편의 전문연구서로 출판한 박사학위 논문이 관련분야 필독서가 됐듯이 李儼九동문의 장녀인 李鍾義(경영93-97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조교수)동문이 미시경제 경영대학원에서 쓴 조직행위론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미국경영학회로부터 최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선정됐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만행인 저를 믿고 따르며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해와서 그런지 조카들이 조빠이도 할머니를 모시며 집안 어른들과 친척까지 챙기는 마음이 참 고요요.”

조빠이가 유학준비를 위해 다녔던 여학원에서 이러한 심정이 엿보였던지 어느 분께서 조카사위인 宋昌炫(사법88-93)동문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조카사위는 Clear

Gottlieb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S&P 파트너스에서 경제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

이밖에 사촌형제 중에는 큰아버지의 차남인 李英九(경제59-65 前에스케이 대표)동문과 작은아버지의 장남인 李璠一(농학61-66 순천대 석좌교수)동문, 그리고 李英九동문의 장남 李俊熙(사법89-93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동문이 모교 출신이다.

경제전문기자나 법학도가 꿈이었던 李儼九동문은 한국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공직에 몸담았던 것이 무엇보다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한다. 李동문은 한국수출입은행 재직 시절 헝가리에 자금을 지원해 한국과의 수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IMF 시절에는 위기에 몰린 한국그룹을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기도 했다.

한편 교무행정에 남다른 열의를 발휘한 李儼九동문은 모교 교무처장 재직시절, 정부의 대학에 대한 강경정책과 민주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헌신했으며, 정년 후에도 포항공대와 스위스의 연방공대에서

李儼九(상학56-61) 동문가족

남동생

李賢九(화학공학58-62)

李正九(의학59-65)

李凡九(물리69-73)

李弘九(수학72-76)

사촌동생

李英九(경제59-65)

李璠一(농학61-66)

장남

李南九(국제경제82-86)

조카사위

宋昌炫(사법88-93)

조카딸

李鍾義(경영93-97)

종질

李俊熙(사법89-93)

초빙교수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지럼증 치료분야에서 따를 자가 없는 셋째 正九는 오랜 미국생활을 접고 지방에도 출몰한 메디칼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단국대 의대로 자리를 옮겼어요.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에서 Edmund Price Fowler상을 수상했으며, 국민레이저치료를 개발·연구하는 의학레이저연구소(RIC)를 설립한 공로로 지난 4월 21일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라니올을 위시한 전자제품의 분해·조립에 남다른 재능을 가졌던 李凡九동문은 국내 유일의 비선형광학분야 전문도사인 ‘비선형광학’을 출간했으며, 李正九동문이 소장하고 있는 RIC와 공동으로 백반과 간질을 치료하는 레이저장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두 형제의 한자음이 실용화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아주 어려서 구구단표를 스스로 만들 정도로 수학능력이 뛰어났던 막내 李弘九동문은 현재 미국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대 가족 인터뷰를 준비하느라 오랜만에 많은 얘기를 나누는 여섯 형제는 6월에 2박 3일 일정으로 충주호 근처로 ‘단합대회’를 떠나 그 옛날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가자며 여행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表)

동 정

수 상



▲**文太俊**(의학44-50 前세계의사 회장)=지난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제1회 '대한의사협회' 상 수상.

▲**林婉緒**(50년 文理大入·소설가)=오는 6월 1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16회 호암상(예술상) 수상.

▲**趙義俊**(화학공학54-58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총장 창조상 수훈.



▲**黃圭宣**(치의학56-60 齒科大學의과위원장)=지난 4월 7일 제3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 수훈.

▲**黃東奎**(영문57-61 모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지난 3월 29일 만해사상 실천선양회가 제정한 제10회 만해대상(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



▲**尹錫喆**(물리58-63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한양대 석좌교수)=지난 4월 19일 인문·사회·자연과학의 문재를 독특한 시

각으로 분석해온 공로로 제15회 수당상(인문사회부문) 수상자로 선정.

▲**金芝可**(미학59-66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지난 3월 29일 만해사상 실천선양회가 제정한 제10회 만해대상(영화부문) 수상자로 선정.



▲**陳政一**(화학60-64 고려대 교수)=지난 4월 19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화학계를 이끌어온 공로로 제15회 수당상(자연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



▲**金廷鎭**(응용화학64-7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

기술총장 창조상 수훈.



▲**金鍾信**(기계공학64-72 한국서부발전 사장)=지난 4월 8일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회에서 산업발전과 품질경영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한국품질경영



인대상 수상.

▲**樓五俊**(임학65-69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지난 3월 27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6회 건



설기술인의 날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韓英子**(간호66-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지난 4월

7일 제34회 보건의 날 및 제58회 세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 수훈.

▲**辛康根**(전자공학70를 美시간대 교수)=오는 6월 1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16회 호암상(공학상) 수상.

▲**樸孝民**(국문71를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3월 29일 만해사상실현한 양회가 제정한 제10회 만해대



상(학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

▲**金源培**(제약67-71 동아 제약 대표이사 사장)=지난 4월 7일 제34회 보건의 날 및 제58회 세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



장 수훈.

▲**金仁權**(의학69-75 여수예양병원장)=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한련면 퇴직와 지체장애인 재활



사업을 펼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安京洙**(화학공학70-74 한국후지쯔 회장)=지난 4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으로부터 국제



협력부문 관리대

상 수상.

▲**黃昌圭**(전기공학72-76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이사장에서 제16회 호암상(과학상) 수상.

▲**金進坤**(화학공학80를 포스텍 교수)=지난 4월 6일 한국고분자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삼성 고분자 학



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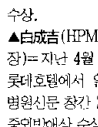
▲**金聖勳**(제약77-81 모교 제약학과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2006년 대한민

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黃洋默**(물리82-86 고등과학원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2006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



▲**沈昇韓**(AMP 3기 삼익THK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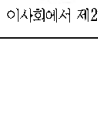


회장)=지난 4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으로부터 연



수상.

▲**白成吉**(HPM 4기 수원백성병원장)=지난 4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병원회 병원신문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중외백애상 수상.



▲**白樂院**(의학44-51 학교법인인



제학인 이사장·문화 교문)=지난 4월 6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에서 열린 서재필기념 정기



이사회에서 제2대 이사장에 선출.

▲**鄭宗源**(행정54-58 충청대학 학장·문화 부회



장)=지난 3월 30일 한국언론재단 매체총회에서 열린 목우회(전



직 내부부 장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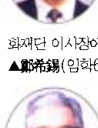
관·시도지사 모임) 총회장에 제5



대 회장에 선임.



▲**梁承圭**(행정56-60 前의문사진



상규명위원장·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



지난 4월 4일 제19대 총장에



선임.



▲**李炳熙**(농학63-67 모교 원예학



과 명예교수·한국 임·예리연구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임.

▲**金裕盛**(행정60-64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지난 4월 6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沈 勳**(경제60-66 前한국은행 부총재·前부산은행장)=지난 4월 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임명.

▲**鄭玉子**(사학61-65 모교 국사학과 교수)=지난 3월 29일 새로운 국제 재과 정에서 자문위원으로 단임할 국제지문 위원장에 선임.

▲**李成太**(경영64-68 한국은행 부총재)=지난 4월 1일 임기 4년의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

▲**李秀哲**(기약64-68 기독교 음악 예술원 주임교수)=최근 한국 교회음악학회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

▲**朴世源**(성약66-72 모교 성안과 교수·태너)=지난 3월 31일 2년 임기의 서울 시오페라단 단장에 임명.

▲**朴貴媛**(의약66-72 모교 외과과 교수)=지난 4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취임.

▲**鄭亮一**(국문72를 서강대 교수)=최근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경영원에서 열린 한국한문학회 정기총

회에서 임기 1년의 회장에 선출.

▲**李熙鎔**(전자공학67-71 前산업자원부 장관·한국부엌협회장)=지난 4월 13일 한미경제협력회(KUSEC) 정기총회에서 회

장에 선출.
▲**朴孝欽**(상학68-72 기약회산처 장관·前대통령 정책실장)=지난 4월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임명.

▲**柳聖烈**(경영70-74 前삼성생명 사장·산정카드 사장)=지난 4월 19일 여신금융협회 정기총회 제5대 회장에 선임.

▲**權五奎**(경제71-75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지난 4월 12일 대통령 경제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

▲**許範道**(경대원76종 前산업자원부 부위원회의 상임위원·자관보)=지난 4월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

▲**朴英媛**(물리79-83 명지대 교수)=지난 4월 5일 아태불리학회(AAPFS) 여성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출.

▲**金永植**(행정81-87 前교유인적자원부 차관)=지난 4월 14일 임기 4년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6대 사무총장에 선임.

▲**尹昌國**(AIP 8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감사)=지난 4월 11일 발명특허심문심판고문에 취임.

▲**李季珪**(AIP 9기 대모비그테크

사장)=지난 3월 17일 원광섬비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5대 회장에 선출.

▲**李 沁**(ACAD 32기 한국주택신문·노년사대 발행인)=지난 4월 7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에 선임.

행 사

▲**安丙元**(상학50출·한국복지재단 토포트 후원회 회장)=지난 4월 21일 서울 종로 YMC에서 자서전 '음악으로 거슬러 올라가' (삼과출판) 출판 기념회 개최. 또 5월 10일 청강문화산업대학 개교 1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의 소원' 노래미 제막.

▲**李吉女**(의약51-57 가천결재단 회장·문화 부회장)=지난 4월 20일 인천 구월봉기전과학대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뇌 과학연구소 개원 행사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韓麗傳**(의약52-58 부산 한문전내과의원장)=최근 수필집 '비가 오니 눈이 오니 바람이 부니' (연문출판사) 출간.

▲**柳寅傑**(농학56-61 성전문화재단 이사장)=지난 5월 4일 성전문화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재단 설립자인 柳東 柳奎水(수원고 농36출) 선생의 전기 출판기념식 개최.

▲**李相禹**(행정57-61 한림대 총장·한일문화교 육기금 이사장·문화 부회장)=지난 4월 14일 서울전경련회관에서 전택대 許宇錫(국사71-75)교수를 초청해 '조선 전기의 세계관과 일본인식'이란 주제로 한일문화 강좌 개최.

▲**李容璫**(전자공학60-64 KT 경영고문)=지난 6개월간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에서 정보기술 경영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지난 4월초 귀국.

▲**丁玉蘭**(응용미술62-66 단국대 공예학과 교수)=오는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서초동 한진프리자텔 라에서 '정옥란 작조상유조형전' 개최.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공예학과 교수)=지난 4월 7일부터 5월 3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마름루 한국 미술관 전시실에서 '움의 요청' 도예전 개최.

▲**郭善浩**(신대원69-71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국동인문화원수원 이사장·중국연변대 객원교수)=지난 4월 21일 북한 개성

시에서 북녘 문화지원 남북공동

▲**金善蓮**(기약74를 삼학대 감사·오보이스트)=오는 5월 31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호른니스트 李政憲(기약 88-94

숙명여대 감사)등은 등과 함께 E. Q.S 앙상블 정기연주회 개최.

▲**송호섭**(기약93-97 충남교향악단 수석지휘자·클라리네티스트)=지난 5월 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아티홀에서 'Parisien'을

부제로 네 번째 독주를 개최.

학 속

(동창회원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힌 동문)

■ 김서동(공법학90-96)·정영수 씨=5월 20일 14시.

■ 서상분(경대원03출)·송은주 씨=5월 27일 17시.

■ 박혜원(식물영양91-95)·심상현 씨=6월 2일 17시.

■ 성준규(사회94-02)·한진용 씨=6월 3일 12시 30분.

■ 이자겸(경영94-01)·김문정 씨=6월 3일 15시 30분.

■ 정장락(동물자원95-99)·이주영 씨=6월 4일 12시 30분.

■ 조한재(공업화학88-93)·손인숙 씨=6월 10일 14시.

■ 최병호(경제학부95-02)·김민정 씨=6월 10일 15시.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재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합니다.
• e메일 : snua@korea.com 또는 ahseop@snua.ac.kr
• 전 화 : 02)702-2233 • 팩 스 : 02)703-0755

동문 기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필요

2000년 한여름, 필자는 辭職으로 살아오던 서울을 떠나 낯선 함양이란 곳으로 이사 왔다. 흔히 말하는 제대복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함께 살고 있는 딸의 직장이 가까워서 그에 집과 내 집을 팔아 이사를 감행한 터였다. 서울대 화학과를 나온 사위는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대 의류학과를 졸업한 딸은 중견 의류제조업체의 간부로 일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 대이전 외손녀 지에는 출생 때부터 종교학 1학년이 되기까지 우리 내외의 정성과 전심을 들으면서 컸었다.

늘 마당에 제비도 아끼며 짓조개 혹은 도베르강, 잠종천 등을 카누며 뽕쟁 단종주 탁에 살아오던 나는 아파트 속 속의 한 채에서 사는 생활이 꽤나 낯설었다. 마지막 살던 역촌동 중 마당에는 개구리, 진달래, 목련 등이 차례로 아리따운 재래를 뽐냈고, 늙은 후박나무의 콧잔 한만 꽃은 그 유난 그 향기를 온 동네에 퍼뜨렸다. 난쟁이 차차 더위질 무렵엔 빨간 장미가 담장을 뒤덮었다. 하지만 한 해의 살만이 겨우인 우리 나라이에서는 아파트가 훨씬 따뜻하다는 불이 있다.

어느 날 나는 동네 청량당 옆을 지나다가 문득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나 궁금해서 한여씨방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두 개의 테이블에 각각 네 사람이 앉아서 마작을 하고 있을 뿐 고스톱이나 장기 또는 바둑을 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전에 나는 아내-노인에게서, 과원의 한 경로님에서는 고스톱과 바둑과, 마작판이 벌어져서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온 남자 회원이 마작만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아득하고 나는 그 노인회의 회원이 되어 잠시 뒤부터 저녁 6시까지 잔뜩 피곤한 마작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도 좋아했다. 온 종일 남자가 들어와 있어 오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일부러 불일이 있다고 하고 좀 더 일찍 나와 친구들과 점심을 사 먹고 그곳으로 출근한다. 그러면

아내는 더 좋아한다.

회장은 전직 정장 출신이고, 회원은 전직 은행 자영업, 개인 사업자, 도지사, 농협중앙회 회장, 세무공무원 등등이다. 관순이 다 된 회장의 재산과 상부 기업을 들으면 나는 아득과 종주에 발탁돼 오늘까지 이 노인회의 살림을 도맡고 있다.

유연한 서울대 출신인 나는, 皮肉의 수필 '소원'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며, 그 중의 몇몇은 저에게 사귀어 다 살고 싶다"는 말처럼 그들 모두에게 다 가고도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不可近 不可達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崔炳德

(출처[55-61])

前崇仁학회 대표

파루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서울대에 입학시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서울대와 인연을 맺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서울대인을 경계하라는 청서를 갖고 있다.

최근 黃禹錫 사건이 한창 불거졌을 때 나는 혼자 있어도 편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호흡조차 곤란해 보였다. 다육이 나 말고는 서울대 출신이 하나도 없는 그 노인회에 나갈 생각을 하니 땀이 났다 뜨거워졌다. 마치 내가 외국인이나 된 것처럼 고개를 틀 수가 없었다. "그저 배라, 서울대 출신이라 고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인

이 앞만 수 있다"라고 위치는 그들의 배라에 뒷발을 올리는 것 같다. 또한 "너도 나는 부당한 회계를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 가미치 반격하지 못한 약권이 있음지도 몰라"라고 위치는 것처럼 보인다.

조급도 흠이 없다고 자처하고 있던 나는 마음을 단호히 다잡고 청량당에 출근했다. 대통령 탄핵 때 반격까지 부러진 그 노인들은 黃禹錫에 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종무인 내의 의식에서 아득 아득과 전였을 테다. 얼마나 암습이 근접근했을까. 공연히 자각자심으로 속스러워진 나는 마자만 하고 돌아왔다.

머칠 뒤 고려대 출신의 한 멤버가 오랜만에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 黃禹錫을 난도질하는 뉴스가 한참 나오니까 그는 난도 칠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선 불타는 사람을 한다는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해서 되겠어요?"라고 외쳤다. 다른 사람들은, 그제나 나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의심한 탓인지 아무 소리로 내지 않았다. 나만의 마자 내가 최인인 안 된다는 목소리로 "그럼요, 학자가 그러면 안되지요"라고 응수했다.

15명의 학자나들이 우리 노인회 회원으로 있었는데 내게 부락이고 농촌 출신들이었지만, 나는 그들 앞에서 민망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저씨, 저너, 한낮의 뉴스 매다나 가족들이 "저것 좀 봐, 서울대 졸업생도 그런 짓을 하구!"라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쳤을 테니까 말이다.

黃禹錫 사건은 전체 서울대인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타격을 가했고, 아울러 좀처럼 쉽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지나친 명예욕은 금물이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아들을 남기는 법이 있다. 그만큼 명예가 중요함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명예는 전리품 바림으로 이뤄지지, 허위로 달성해서는 안 된다. 연구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오직 명예욕에만 사로잡혀 부패해 동원 연구자들이 있다면 뼈저린 반성을 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인의 정가방종을 규탄한다. 黃교수의 형성이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차츰자, 몇몇 정치인과 몇몇 지지단체장들이 너도나도 앵다귀 그와 사적인 형사를 벌였는데, 이것 또한 반격하지 못한 처신이다. 정치인들은 불난 내면 자기의 얼굴을 알리려고 온통 마음을 쓰지만, 정작 국민들이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느냐"에 달려 있다. 선사 黃교수가 진리를 바탕으로 큰 업적을 이뤘다고는 차더라도 그와 함께 사인 찍는 형사는 갖지 말아야 했다는 뜻이다.

셋째, 언론계도 깊은 자성을 해야 한다. 黃교수 논문이 조작되었음이 판명됐을 때, 우리의 텔레비전 뉴스는 정시시간을 거의 黃교수 매리로 매웠다. 그 50%의 뉴스 시간은 내가 고분을 받는 시간이었으며, 하루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다. 등에 잔담이 흐르고 있었다. 신문은 그보다는 덜 했으나, 역시 대대적으로 특권했다. 이와 관련된 동문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그 부럽. "음기세로는 없고, 黃교수의 논문은 조작됐다"는 짧은 뉴스만 들어도, 온 국민은 견줄 수 없는 충격에 취한 것이지 않은가.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한단 말인가. 黃교수뿐 아니라 국가가 망신을 당하는데 그렇게 장시간 고통을 준다는 것은 미조치증(Masochism)이 아니고 무엇인가. 언론은 그밖에, 이리저리에서 감시할 세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기관을 가혹하게 적대화 바 있는데, 그것은 수취서 부패에 다음이다. 만지 국민이나 국가의 체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동문들도 발상의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에 수를 끼치는 행위를 일안해야 한다. 제 할 몫을 다 해 놓고 남을 비방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위선자에 불과하다.

동문 모두가 합심협력해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길 바란다. 초석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신 간

행정의 윤리

—劉鍾海 공저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劉鍾海(1945.5.10~54) 부회 회장(명예교수)가 '행정의 윤리' 제2판을 펴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속 더 역점을 두어 윤리적 각도에서 다뤘고, 1998년에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이념이론 연구관 金 鍾교수가 새로 공저자가 되면서 행정의 윤리를 서민적으로 세련해 보강해 부속했다.

던 부속은 대폭 보완했다. (반정사판·값25,000원)

인더스 강을 따라

히말라야까지

서울대 교수산악회 편



2005년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파키스탄의 반도르 및 하지대의 탐사(대단 17명의 모교 교수)를 중심으로 그들의 일정에 따른 기록과 사진, 글을 모았다. 3부도 나눠 1부 '파키스탄으로 가는 길'에서는 준비부터 시작해 드레킹의 전 과정의 기록을 담았고, 2부 '17인의 초상화'에서는 드레킹의 주인공인 17명 교수의 짧은 프로파일 사진과 함께 실려 있으며, 3부 '아스라비 할구나무'

에서는 여행기와 파키스탄의 사회에 대한 분석의 글을 실었다. (서울대출판부·값15,000원)

뫼에 걸린 황우석

—高善慶 지음



黃禹錫 교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삼기대 법학과 高善慶(대단 61-65) 교수가 黃교수 사태와 관련된 그 동안의 관측·비평을 엮었다. 이 책은 인간 黃禹錫, 종재의 법칙과 뫼에 걸린 黃禹錫,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증, MBC PD수첩과 KBS 추적60분, 변신한 黃禹錫 정권과 정치인들, 윤리학과 대외의 싸움 등을 차례로 자세하게 서술했다.

도 黃禹錫의 진실과 부패, 기자회견 등 연구자에게 특혜수호를 해 내 중요한 자리가 들어 있으며, 黃禹錫 패권을 모르면 일반 시민들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 (남대·값12,000원)

예수, 일면 밀게 된다

表庸慶 지음



호주 멤버 부자부 회장 음 역임한 表庸慶(지침과 461-65) 동문이 진정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

는 세 신자들이 알아야 할 1백29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공한다. 저자: 세 신자들이 거려진 없이 만지는 하나의 물음이 신앙을

키게 하는 방법이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누가 해답을 만들었는지, 해답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경은 만을 만만 책인지,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등 세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한대·값8,800원)

공연

바리톤 金奎求 독창회

—5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뉴욕 에메르소어리안 음악감독 및 단장을 역임한 金奎求(성악64-68)교수가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이날 金奎求는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등의 작곡을 비롯해 '산유화', '들레화', '진달래화' 등을 선보인다. (문의: 에메르소어리안 586-0945)

◆APC △서장원③ △이정호②
△장성현③ △한준호②
◆HFM △최재현③ △김성현①
△서광현③ △유석현③ △이승현③
△조광현③
◆AIC △김동구③ △보현안③
△유병현③ △이상록③ △이필로①
◆GLP △장은호③

일 반

◆인문대 △간협현③ △장희규③
△전인현③ △최경현③ △최은경③
△홍성현③
◆사회대 △김경현③ △김영현③
△김홍수③ △유지우③ △박기훈③
△박정숙③ △박홍배③ △서진욱③
△인백현③ △유지우③ △이기우③
△이동삼③ △이수현③ △이문우③
△이정현③ △이현태③ △임국현③
△전상호③ △정 도③ △장기태③
△정일영③ △조동현③ △조영남③
△주동현③ △최현우③
◆자연대 △김용백③ △노성우③
△서문수③ △장병태③ △정인범③
△채신규③ △한상근③
◆간호대 △김경자③ △신숙희③
△우정수③ △이은숙③ △성병숙③
◆경연대 △김종현③ △모과관③
△오기복③ △유승권③ △정지택③
◆공대 △강성수③ △강창식③
△강민석③ △고재현③ △권정태③
△김광일③ △김규선③ △김대년③
△김대현③ △김대호③ △김동주③
△김병현③ △김성근③ △김성태③
△김세영③ △김성태③ △김영근③
△김재욱③ △김대현③ △김한근③
△김현국③ △노홍배③ △문동우③
△민병진③ △박경호③ △박동재③
△박인관③ △박인환③ △박준기③
△박희영③ △박노현③ △서성수③
△서정현③ △송은석③ △신재경③
△심민호③ △서지규③ △안병환③
△안상갑③ △이재현③ △오성근③
△오창수③ △오창훈③ △오태시③
△유종희③ △유복호③ △윤영각③
△윤의광③ △윤현상③ △이 서현

△이교상③ △이규환③ △이덕기③
△이동욱③ △이대수③ △이부현③
△이봉희③ △이성현③ △이수남③
△이연주③ △이유현③ △이종우③
△이준재③ △이태수③ △이현봉③
△이현규③ △이호선③ △임경숙③
△인종현③ △임정우③ △장성현③
△전기현③ △전민우③ △전차수③
△정학진③ △조 만③ △주상자③
△세수현③ △최 훈③ △최상호③
△홍소일③ △변영분③ △황용수③
◆농대 △강광선③ △김일우③
△김인경③ △상종호③ △최홍석③
△배은주③ △권광영③ △김문수③
△김삼남③ △김영길③ △김영민③
△김동호③ △김정기③ △유종렬③
△박성훈③ △박성연③ △박정민③
△박승민③ △송상석③ △이인성③
△여위구③ △유원준③ △유관일③
△윤병일③ △이도현③ △이창희③
△이상호③ △이수현③ △이은우③
△이인영③ △이현준③ △이진호③
△이진희③ △이홍서③ △김낙현③
△장성현③ △정기모③ △정인우③
△채병환③ △전정우③ △최병태③
△최영주③ △최정수③ △한상복③
△한상복③
◆문리대 △강창성③ △강현현③
△박희영③ △권기수③ △김동준③
△김서민③ △김수복③ △김용년③
△김유영③ △김정수③ △김지현③
△나호진③ △노영리③ △노태관③
△문 용③ △박준자③ △박정현③
△박재민③ △박준민③ △배인하③
△백병기③ △서병현③ △석종성③
△수영설③ △송병철③ △송인환③
△신상준③ △신영관③ △심사수③
△우상태③ △이 강③ △이건우③
△이규동③ △이근호③ △이문규③
△이병자③ △이종명③ △이주현③
△임성기③ △유갑석③ △정성훈③
△김학두③ △박 전③ △박성민③
△박민도③ △박대호③ △이상희③
△이무식③ △정성민③ △조재규③

△최병진③ △한영석③
◆법대 △강 성③ △강성태③
△강형준③ △권근현③ △김남현③
△김성식③ △김민현③ △김무현③
△김재현③ △김관규③ △박정현③
△박재수③ △서주현③ △손석주③
△한남기③ △이대영③ △이영애③
△이태희③ △정복규③ △정병태③
△정용재③ △정의석③ △조용석③
△조정현③ △최갑석③ △한 경③
△한현진③ △허소태③ △홍은영③
◆사대 △산만일③ △구사용③
△김규현③ △김광현③ △김영준③
△김성진③ △김진현③ △김용희③
△김유병③ △김정현③ △남준기③
△남규우③ △박노하③ △박영서③
△박종원③ △박주현③ △변영희③
△서경현③ △서우수③ △신용진③
△안승현③ △유기웅③ △유성현③
△유동현③ △유석우③ △윤재석③
△이세운③ △이광우③ △이봉기③
△이석복③ △이원식③ △이유경③
△이정진③ △이정태③ △이준현③
△이창호③ △이재규③ △인명현③
△전영우③ △정봉우③ △정신호③
△재우현③ △조영원③ △최민희③
△주성규③ △하병관③ △한상수③
△현승영③ △홍기우③ △홍정희③
△홍종현③
◆상대 △과 규③ △권영현③
△김기현③ △김병기③ △김순봉③
△김영근③ △김정우③ △김정현③
△김정환③ △남기현③ △박대현③
△배지현③ △오길영③ △오정현③
△유무수③ △이 연③ △이석수③
△이승규③ △이연수③ △이영상③
△이영일③ △이진호③ △유병수③
△임효문③ △전종현③ △정경현③
△정성현③ △조기현③ △진영민③
△최동우③ △최용호③ △한정기③
△허 권③ △홍동현③
◆생리대 △박민현③ △이인영③
△오경수③ △임인수③ △홍은경③
◆수리대 △권수기③ △권순호③
△김정근③ △김종현③ △박병식③
△신대현③ △이정현③ △이정현③
△전원현③ △정광현③ △조용호③

△최성현③
◆약대 △김경목③ △김민수③
△김병기③ △김용준③ △김정현③
△김현기③ △김홍배③ △박정현③
△박준기③ △송분영③ △이석규③
△이해민③ △임경목③ △정동원③
△홍기석③
◆음대 △김정현③ △김현이③
△서자수③ △서해민③ △송영애③
△오영기③ △이영민③ △이진영③
△정준자③ △정혜선③ △조길자③
△최인배③
◆외대 △김재현③ △김재영③
△박봉현③ △박종민③ △신미자③
△신상우③ △임대현③ △이인복③
△이재현③ △이준배③ △이학준③
△조승현③ △주지수③ △문영실③
◆치대 △김인희③ △권오근③
△김원기③ △김의배③ △김정희③
△김태현③ △김희현③ △김진희③
△남대우③ △유종현③ △이서원③
△손호현③ △서동일③ △신철수③
△양진호③ △원문현③ △윤위근③
△이강현③ △이성현③ △이영애③
△이정현③ △이희현③ △장나현③
△정호진③ △조영선③ △조영진③
△한규현③ △한정현③
◆대학원 △김동현③ △김문현③
△김종수③ △김진수③ △손창기③
△이희현③ △한상서③
◆경대원 △박정민③
◆보대원 △김대규③ △김영민③
△김정현③ △송정현③ △이승진③
△정진현③ △최치원③
◆사대원 △이원영③ △지현민③
◆행대원 △김인영③ △성규태③
△송병희③ △이정현③ △이석현③
△이민현③ △이희현③ △최영미③
◆한대원 △한희현③
◆AMP △박병규③ △권기우③
△김명수③ △김배현③ △김봉수③
△김정현③ △박영민③ △박태현③
△박분현③ △서영현③ △손대성③
△신경현③ △윤수현③ △유정우③
△원동현③ △유재현③ △유동규③
△이병태③ △이문현③ △이진현③

△장진영③ △정기현③ △정현현③
△최광현③ △최영석③ △최오길③
△최용수③ △한재현③
◆AIP △고재현③ △김수영③
△김순현③ △박재현③ △박정현③
△박종우③ △석도현③ △유기현③
△유은목③ △이유수③ △이현영③
△허민현③
◆ACAD △김노현③ △박원준③
△김경수③ △김광원③ △김영호③
△김종현③ △김진현③ △박민현③
△인수현③ △이민현③ △이학준③
△정동우③ △정종현③ △서승석③
◆ABP △송유진③ △김민희③
△조명현③
◆SGS △유경준③ △정종현③
△정태현③
◆CHON △박유수③
◆APC △박성진③ △박대호③
△조지현③
◆HFM △김일영③ △김규기③
△이준현③ △이주현③ △조정수③
△이병수③
◆AMFP △이영석③ △이준현③
◆AC △박태규③ △성기현③
△윤영기③ △이민현③ △김진현③
◆AFB △강진현③
◆AMFFPI △김기민③ △김영진③
△김현수③
◆ACFMP △고재석③ △김기현③
△김수현③ △김동갑③ △박태현③
△정성현③ △정문태③ △최지현③
◆IP △권동현③ △김수호③
△김종현③ △한영민③
◆GLP △최영진③ △김동호③
△김용현③ △김대현③ △나기현③
△배원기③ △서수경③ △송병호③
△이남현③ △이영기③ △이정현③
△조순태③ △최정민③

3 월 계 : 97,065,000원
평상회비 : 55,100,000원
입 회 비 : 0원
총 계 : 476,438,652원